

발행처 : 한국혁신센터(KIC)중국
센터장 : 이상운

전화 : +86-10-6437-7896
메일 : info@kicchina.org

'주간 중국 창업'의 저작권은 'KIC중국'에 있습니다. 출처 밝혀주시고 무한 활용하십시오.

주간 NEWS

- ▶ 제 4 회 국제 혁신 창업엑스포 북경개최 - 신중국 성립 70 주년을 기념하는 혁신성과의 향연 (중국일보왕, 2019.12.20)
- ▶ 중국에서 복제가 안되는 Peloton 의 성공 (소후과기, 2019.12.26)
- ▶ 미중의 입장차이 - 서방의 중국 양자과학자 보고에 관한 중국 관영지 반박 (환구시보, 2019.12.28)
- ▶ 중국 20 호 인공위성 성공발사 (봉황과기, 2019.12.27)

ISSUE 및 시장동향

- ▶ 라이브방송 판매, 인터랙티브 드라마, 미니 드라마...2020 년 콘텐츠산업 트렌드방향 - 티타늄미디어 제공
- ▶ 창업자가 쫓겨난 뒤 기업의 운명 - 봉황과기 제공
- ▶ 2020 년 8 대 돈버는 아이템과 중국 경제 4 대 트렌드 - 창예방 제공
- ▶ 양자컴퓨터 시리즈 28) 양자컴퓨터 방면에서 중국과학자의 새로운 성과 - 중앙왕 제공
- ▶ ICO News Letter by PLAYCOIN 특집 - PLAYCOIN 제공
- ▶ 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디자인(108) - 윤희건 교수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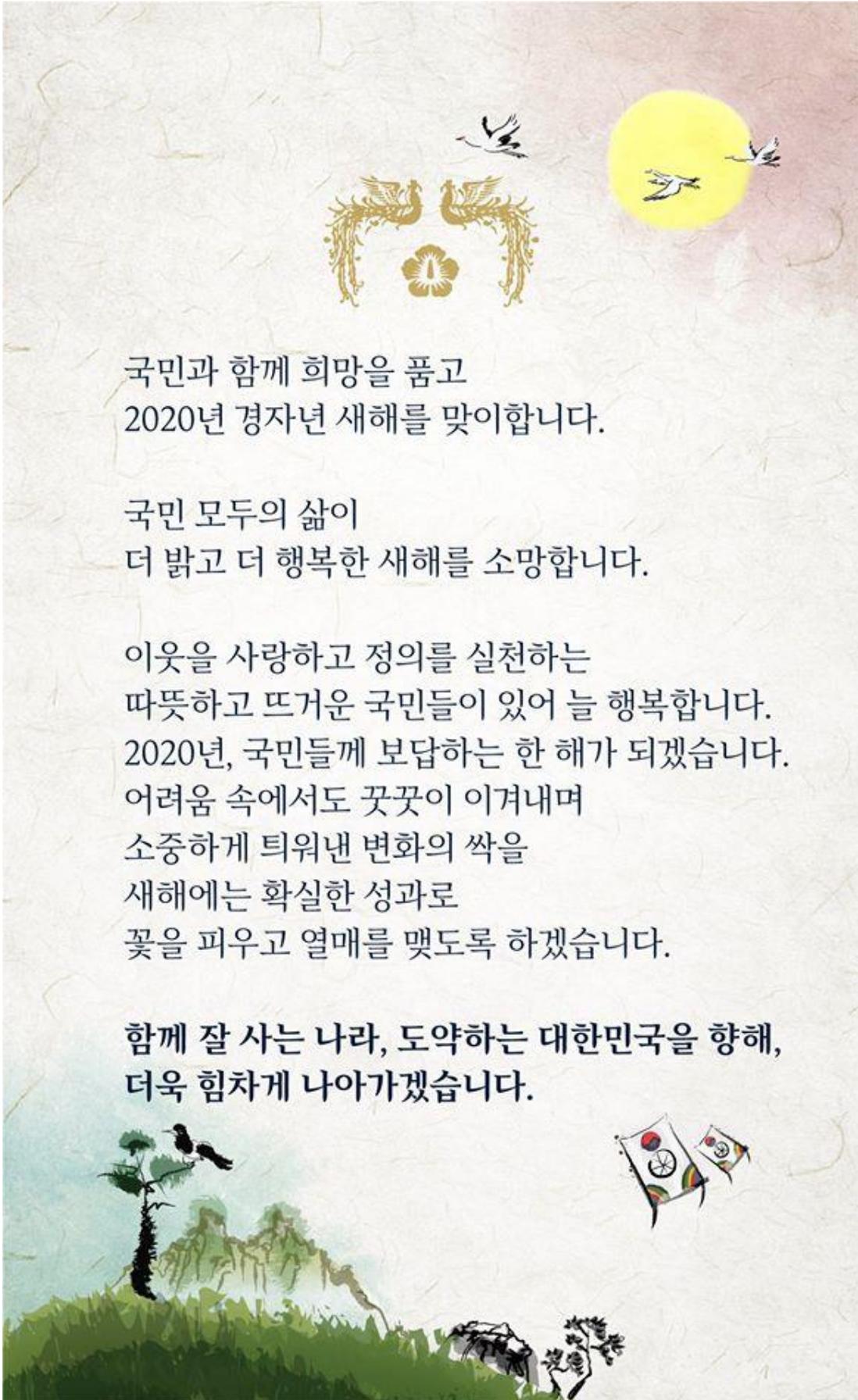
일본 전문가 시각으로 본 중국

- ▶ 왜 중국 디지털통화가 무서운가, 2020년 올림픽 결재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 (Coindesk Japan, 2019.12.24)
- ▶ 중국의 불량채권문제, 금융위기를 회피할 수 있을까, 일본의 버블기를 상기 (Nippon, 2019.12.24)
- ▶ 아베외교, 활발하게 외유를 해도 세계에 인정받지 못하고... '보이게 하기'의 처방전 (Newsweek, 2019.12.24)
- ▶ 일본의 노동생산성을 올리기 위해 필요한 '단 하나의 일' (겐다이비즈니스, 2019.12.26)

KIC 중국 NEWS

- ▶ 중국기업연합회 및 중국기업가협회, KIC 중국 방문 (2019.12.23)
- ▶ KIC 중국, ETRI 와 한국기업 중국 진출 지원을 위한 협력 체결 (2019.12.24)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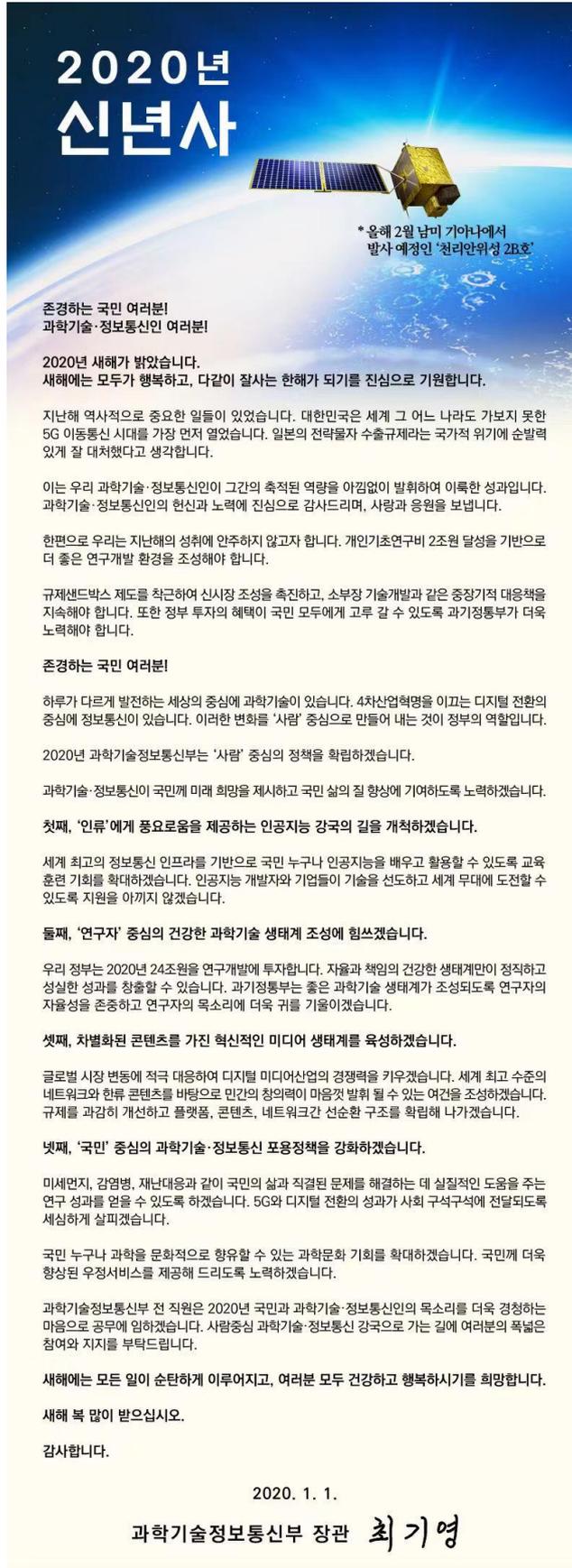
국민과 함께 희망을 품고
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이합니다.

국민 모두의 삶이
더 밝고 더 행복한 새해를 소망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정의를 실천하는
따뜻하고 뜨거운 국민들이 있어 늘 행복합니다.
2020년, 국민들께 보답하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곳곳이 이겨내며
소중하게 틈워낸 변화의 싹을
새해에는 확실한 성과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잘 사는 나라,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향해,
더욱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최기영 과기부 장관 신년사》



**2020년
신년사**

* 올해 2월 남미 기아나에서
발사 예정인 '천리안위성 2B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과학기술·정보통신인 여러분!**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모두가 행복하고, 다같이 잘사는 한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 역사적으로 중요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그 어느 나라도 가보지 못한 5G 이동통신 시대를 가장 먼저 열었습니다. 일본의 전락물자 수출규제라는 국가적 위기에 순발력 있게 잘 대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인이 그간의 축적된 역량을 아낌없이 발휘하여 이룩한 성과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인의 헌신과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사랑과 응원을 보냅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지난해의 성취에 안주하지 않고자 합니다. 개인기초연구비 2조원 달성을 기반으로 더 좋은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확고하여 신시장 조성을 촉진하고, 소부장 기술개발과 같은 중장기적 대응책을 지속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 투자의 혜택이 국민 모두에게 고루 갈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가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세상의 중심에 과학기술이 있습니다. 4차산업혁명을 이끄는 디지털 전환의 중심에 정보통신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사람' 중심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2020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확립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이 국민께 미래 희망을 제시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인류'에게 풍요로움을 제공하는 인공지능 강국의 길을 개척하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 인프라를 기반으로 국민 누구나 인공지능을 배우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인공지능 개발자와 기업들이 기술을 선도하고 세계 무대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둘째, '연구자' 중심의 건강한 과학기술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2020년 24조원을 연구개발에 투자합니다. 자율과 책임의 건강한 생태계만이 정직하고 성실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좋은 과학기술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연구자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연구자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셋째, 차별화된 콘텐츠를 가진 혁신적인 미디어 생태계를 육성하겠습니다.

글로벌 시장 변동에 적극 대응하여 디지털 미디어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겠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와 한류 콘텐츠를 바탕으로 인간의 창의력이 마음껏 발휘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플랫폼, 콘텐츠, 네트워크간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국민' 중심의 과학기술·정보통신 포용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미세먼지, 감염병, 재난대응과 같이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연구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G와 디지털 전환의 성과가 사회 구석구석에 전달되도록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국민 누구나 과학을 문화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과학문화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국민께 더욱 향상된 우정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 직원은 2020년 국민과 과학기술·정보통신인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는 마음으로 공무에 임하겠습니다. 사람중심 과학기술·정보통신 강국으로 가는 길에 여러분의 폭넓은 참여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는 모든 일이 순탄하게 이루어지고,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희망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0. 1.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기영**

주간 NEWS

1. 제 4 회 국제 혁신 창업엑스포 북경개최 - 신중국 성립 70 주년을 기념하는 혁신성과의 향연 (중국일보왕, 2019.12.20)



사진 1) 출처: 중화전국총공회. 12 월 20 일, 제 4 회 국제 혁신 창업엑스포가 베이징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다.

12 월 20 일 중화 전국 총공회와 중앙공청단의 지도하에, 국무원 국자위(国务院国资委) 뉴스센터, 중국과학협력 과학기술전파센터, 중국과학원 과학전파국, 중국청년신문, 중국 직원 국제여행사 본사 등의 기관이 연합주최하여 제 4 회 국제혁신 창업엑스포를 북경국가회의중심에서 성대하게 열었다. 올해 엑스포는 신중국 창립 70 주년을 맞아 개최된 대규모 행사로, 공회가 수많은 직원을 인솔하고, '대중창업 만인혁신'의 실천 성과를 집중적으로 전시하도록 공청단이 이끌었다. 70 년간의 위대한 여정과 영광스러운 성과를 '주인의식을 갖고 신시대를 건설'하는 이념에 맞춰 전시했다.

올해 엑스포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발표한 <신시대 산업 노동자대오 건설 개혁 계획>을 구현했으며, 17 차 중국 공회가 확정한 17 대 목표과 임무를 반영하며, <중국제조 2025>의 국가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일대일로'건설을 주도적으로 융합하여 산학연 기구와 기업이 건설한 혁신 성과 플랫폼과 국제교류 협력 플랫폼이 되었다. 국내외 최신 과학혁신성과를 전시하고 과학혁신형 기업 사례를 전시하여 시범으로 보이며, 과학기술과 산업의 심도깊은 융합을 추진하며, 국가 혁신 발전전략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된다.

엑스포에서는 내몽골, 랴오닝, 상하이, 지린, 안휘, 후난, 산둥, 장쑤, 장시, 충칭, 귀저우, 신장 등 성급 공회와 베이징, 헤이룽장 지역의 시현급 공회, 중국항공우주과학 공회, 중국항공우주과학기술, 삼샤그룹(三峡集团), 창칭요티엔(长庆油田) 등 100 개 이상의 대형 중앙기업과 국유 기업이 참가하여 혁신 창업 창조 성과를 전시회에 선보였다. 동시에 독일, 프랑스, 싱가포르, 몽골 등 20 여개 국가와 지역에서 200 개가 넘는 혁신 창업 기관이 참여했다. 전시장 면적은 16500 평방 미터이며, 대국 공장 전시구역, 공청단 전시구역, 도시전시구, 향촌진흥전시구, 국제전시구 등이 중점 전시구다. 정부, 기업, 학원, 창업가,

투자자, 인큐베이터 단지, 신흥운영체, 중소기업 등의 기구가 상호 교직되어 다양한 형식과 다양한 면모로 나타난다. 엑스포 기간 대국공장과 직원 혁신 포럼, 2019 공청단 청년혁신사례 공유와 서비스 청년 혁신창업 포럼, 제 4 회 중국건강의료산업발전 컨퍼런스, GANKER ARENA 2020 베이징 기자발표회, 로봇 경기 서밋, 데이터화를 추구하는 제 5 회 요식업발전국제포럼, 농촌 진흥과 산업융합 혁신발전포럼, 북경대학 창업훈련캠프 로드쇼 등 테마이벤트가 열려 혁신과 창업이 주는 미래를 보여주었다.



사진 2) 출처: 중화전국총공회, 박람회 현장

전시회에 인터넷, 인공 지능 생명 공학, 의료 로봇, 교통 물류, 신에너지 등 첨단 '블랙'테크놀로지와 '블랙'재료가 선보였다. 스마트 운동, 스마트 농업, 친환경공업, 비물질문화유산이 생활에 주는 새로운 혁신 상품과 새로운 산업 형태가 돋보였다.

안면 인식 기술, 드론 내비게이션, 드론, 자율 주행 차량, 스마트 연결형 차량, 정수 기술, 청정 에너지, 셀프 온라인 티켓 기계, 셀프 커피 머신 등과 같은 새로운 시대에 걸 맞는 기술이 속속 선보였다. 5G 속도 체험, 빅 데이터, 보안, 모니터링, 군사 장비, 네트워크 인텔리전스, 비즈니스 생태학, 운영 인텔리전스, 가볍고 작은 지능형 검사 로봇, 기하학적 로봇과 다양한 산업에 사용되는 로봇이 참관자의 눈을 현란하게 하였다. 혁신 창업 정신 교육 + 혁신 창업 실천 트레이닝, 전통과 유형의 충돌, 창업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열리고, 혁신창업이 도처에 준비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절로 도전정신을 불러 일으킨다. 국제 로봇 격투대회 발표회, '스포츠 + 기술, 스포츠 + 미디어, 스포츠 + 금융, 스포츠 + 서비스' 등 서로 다른 영역간의 융합에 관한 아이디어를 함께 펼쳐보게 하며, 청년이 과학 기술 스포츠 분야에서 일자리를 찾고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돕는다. 'sports +'는 새로운 불꽃을 불러 일으켰으며, 엑스포 어느 곳에서나 다양한 최신 과학 연구 성과를 볼 수 있으며, 가장 관심을 끈 것은 역시 로봇과 드론이었다. 어린이, 노인 상관없이 흥분하여 자리를 다뒹 관람하며 새로운 시대의 과학 기술 발전을 느끼고, 스마트 미래에 대해 상상을 펼친다.



사진 3) 출처: 과학일보, 베이도우 네비게이션(北斗导航) 시스템.



사진 4) 출처: 과학일보, 오일 및 가스 혼합 무인스마트 운송 장치 모델

혁신 창업 엑스포는 2016 년부터 연속하여 개최되어 제 4 회를 맞았으며 총 전시 면적은 60,500 평방미터이며 중국, 미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네덜란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몽골 및 기타 국가 및 지역의 약 1,210 개 기관이 참가하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재능을 보이고 뛰어난 기술을 뽐냈으며, 꿈을 추구하는 공동 창조, 공유, 윈윈의 혁신 플랫폼이 되었으며, 국내외 산학연기구, 창업기업과 투자기구가 구축하는 국제적 전시, 교역, 교류, 투자 유치, 협업의 서비스 플랫폼이 되었다.

엑스포에서 기술을 겨루고, 백가지 산업을 보여주며, 광대한 근로자와 청년 인재들의 혁신 창업 창조 활력을 고무했다. 또한 고갈되지 않은 혁신 창업창조 지혜를 방출하고, '대중창업 만인혁신'의 큰 물결을 불러일으키고, 중국경제사회의 수준높은 발전에 기여하였다.

2. 중국에서 복제가 안되는 Peloton의 성공 (소후과기, 2019.12.26)



사진 1) 출처: 소후과기

'중국에서는 1억명이 거짓으로 헬스를 하고 있다'

이것은 한 매체가 Tmall이 발표한 <2019 운동소비추세보고>와 국가통계국 수치를 통해 내놓은 결론이다. 예측과정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적지 않은 '헬스 애호가'들을 자극하는 말이다.

996(편집자 주: 오전 9 시에 출근하여 밤 9 시까지 야근하며 주 6 일 일하는 업무 형태를 말함)의 높은 스트레스와 건강 근심의 협공아래, 헬스는 거의 현대 사회에서 대체할 것이 없는 필수가 되어왔다. 유일한 문제는 헬스는 진입장벽이 높고 전문적인 훈련이 필요하고 그 과정이 그리 즐겁지 않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러닝머신은 종종 빨래 건조대로 쓰이는 운명에 놓이고, 헬스클럽 회원권은 샤워장 이용권으로 바뀐다.

사실상, 지난 몇 년간 중국의 헬스클럽 산업은 폭발적으로 성장해왔다. 2015년부터 중국의 헬스클럽 산업 시장규모는 30%이상 증가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급한 속도로 열기를 띄운 시장 배후는 상응하는 기초 시설 설비, 인재 배양과 걸맞는 관념의 전환이 아직 완벽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2019년에 이르러 이러한 '허상의 번영'은 부작용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시장 증가속도는 완만해졌고 일부에서는 폐관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국제 인터랙티브 헬스 플랫폼 회사인 Peloton은 차별화하며 부상하였다. 태평양 반대편의 헬스 종사자들을 위해 새로운 사고를 제공했다-스마트화되고 소프트웨어가 일체화되었으며 월 지불 등 새로운

헬스 운영 방식의 개념, 운동 진입장벽 낮추기, 시험해보려는 욕구의 유도로 신속하게 용자와 확장을 완성했다. 올해 9 월 Peloton 은 나스닥에 상장했고 시장 가치는 백억 달러를 돌파했다.

모방자들은 미증유의 시험대에 올라있다. 이러한 신형 스마트 헬스 플랫폼은 Peloton 의 성공을 복제할 수 있을까? 시장의 '거짓 헬스' 열풍이 사그라든 후 어떻게 해야 전통적인 헬스업계의 곤경을 타파하고 헬스의 지속 가능한 시장을 부화시킬 수 있을까?



사진 2) 출처: 소후과기

Peloton 성공은 미국 헬스 문화를 떠나 말할 수 없다

Peloton 이 흥기하기 전, 미국은 이미 고도로 성숙한 헬스 시장을 형성하고 있었다. 글로벌 체육 헬스 산업이 가장 발달한 국가이며, 미국인은 일찍이 헬스문화를 문화 속에 심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신체와 정신을 유지하고 있는냐는 빈자, 중산층과 부유한 계층을 구별하는 중요한 지표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당시 미국의 오프라인 헬스장 운영방식은 주로 3 부류였다.

1. 전통적 대형 헬스체인점으로 이러한 종류의 헬스장의 분포 밀집도는 높았고 기기 설비는 전부 갖추어져 있었다. 예를 들어 유명한 Planet fitness 는 북미지구에서 천여 개 지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초 회원비는 매월 10 달러밖에 들지 않는다.

2. 소형 고급 헬스장. 이러한 헬스장은 어떤 특정한 프로젝트 위주로 스피닝바이크 헬스장 Soulcycle, 권투 연습실 Gleason's, CrossFit 스튜디오 모두 고급 헬스장의 전형적인 대표들이다. 수업 하나의 수입이 20~40 달러로 각기 다르다.

3. 온라인 헬스통용회원권, O2O 식 헬스장으로 사용자가 온라인 플랫폼 회원을 구매하면 각 오프라인 헬스장의 교육 과정을 예약할 수 있으며 어떤 특정 헬스장에 장기적으로 묶여 있을 필요가 없다. ClassPass 플랫폼으로 말하자면 뉴욕에 있고 매월 75 달러로 5 개 과정을 예약할 수 있다.



사진 3) 출처: 소후과기

Peloton 방식의 출현은 과거 오프라인 장소 위주던 헬스업태에 최고의 보충이 되었다. 플랫폼은 요가, 달리기, 스피닝 바이크와 같은 대량의 다양한 전문 영상을 제공했고, 사용자는 월사용료를 지불하거나 연간 이용료의 형식으로 열람하며 집에서 달리기 영상을 따라 언제든지 트레이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플랫폼은 젊은이의 환영을 받았으며,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도 자전거나 러닝머신상에서 운동하고, 운동 기구가 있으면 직접 방송 교실을 연결하고, 스타 트레이너와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어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고 높은 헬스 효과를 올릴 수 있다.

Peloton 은 미국 헬스산업의 정교하고 세분화된 운영의 구현이다. Peloton 의 성공은 성숙한 헬스시장 환경과 이미 운동을 생활방식으로 삼은 광대한 사용자군과 떨어질 수 없다. 과거 몇십년간 미국은 국민운동 소양과 운동과학의 기초 연구에 전력을 다했고, 헬스를 고유의 표지에서 타파하여 대중화시켰다.

예를 들어 헬스장 Planet Fitness 는 명확하게 '판정하지 않는 공간(Judgement Free Zone)'을 제출하여, 헬스장에서 다른 사람을 비평하는 것을 금지하고, 큰 소리로 소음이 되는 것을 금지하고 사진 촬영을 금지하는 등의 규정을 만들었다. 이러한 규정은 신체가 비만한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일을 미연에 방지했고 새로운 '헬스장에 눈살이 찌푸려질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을 방지했다. 시장은 충분히 컸고 사용자는 충성했으며 상품과 기업은 계속하여 더 큰 가능성을 발굴했다.

중국의 헬스 상품은 왜 좌초되었는가?

Peloton 의 성공은 대서양 건너편에서 한 가정의 스마트헬스의 입구가 되었다. 국내 최대 운동 과학기술 플랫폼 Keep 은 샤오미, 화웨이 등 스마트 하드웨어 제조사와 한 무리의 헬스 영역의 스타트업을 만들고 계획을 배치하기 시작했다.

이전에 중국헬스산업은 변화를 겪었다. 먼저 쓰러진 것이 대형 전통 헬스장이었다. 올해 성립 20 년된 전통 헬스 체인점 거두인 하오샤 헬스(浩沙健身)가 망했고, 연쇄반응을 일으켰다. 도산 흐름이 시작되자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헬스 App 으로 몰렸다. 진짜 문제는 헬스장의 수량이 십년내 폭발적으로 18 배 증가했으나, 사용자의 헬스 의식과 습관은 같이 성장하지 않아 재구매율이 매우 낮은 상황을 일으켰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거액을 카드를 만드는데 쏟아부은 후 발견하게 된다. 헬스장이 너무 멀리 있거나 근무시간이 파편화되었거나, 첫 한달을 제하고는 다시 가지 않게되며 심지어 '일회용소비'가 되어버렸다. 사용자를 놓고 가격 전쟁의 출혈 경쟁을 벌이기도 하여 연간 이용권 가격은 해를 이어 폭락하였다. 고객이 적고 가격이 싸다보니 자금 부족을 낳고, 헬스장에서 시작한 '수영과 헬스를 접해보세요'라는 세일즈 행위가 더 빈발해지고 입소문은 더욱 나빠졌다.



사진 4) 출처: 소후과기

악성순환 하에 산업은 붕괴되었다. '전통헬스장을 전복시킨 자'로 여겨진 온라인 헬스 App 도 암초를 만났다.

헬스영상 교육과정이 주 내용인 App 은 콘텐츠 동질화를 피할 수 없었고 남은 사용자가 적게 되는 문제를 낳았다. 스마트 건강관리 하드웨어 상품은 초기의 신선함이 지나자 사용자가 오래 사용하고자 하는 동기로 이끌기 힘들었다. 일정시기에 유행하고 환영받은 헬스 O2O, 공유헬스 등의 상품은 고객 유동량이 적고 기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모되고 운영 효율은 낮은 등의 문제로 폐업했다.

이러한 상품은 예상한 성공을 획득하지 못했다. 본질적 원인은 초기 단계인 중국 사용자가 가장 수요로 하는 '움직이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데 있다. 미국 시장과 다른 것이 중국 사용자의 운동 습관은 당연한 것이 아니고, 고급 기계, 엄선된 콘텐츠, 테크놀로지를 뽐내는 하드웨어만으로는 부족하며, 사용자에게 진정으로 결핍된 것은 지속하려는 동기와 운동 습관이였다. 시스템의 솔루션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과 하드웨어를 온오프라인에 두고, 오래 지속되는 고무와 수행 시스템을 구축해야 길게 그들을 '잡아둘 수' 있다.

중국에서 가장 빨리 시작한 헬스 플랫폼 Keep 은 현재 걸어온 길이 가장 길다고 할 수 있다. 대량의 사용자가 Keep 안에서 '초보'에서 '도사'의 변화를 완성하며 '거짓 헬스'하던 사람도 휴대폰에 Keep 앱을

다운받은 후, 어느 날 문득 다시 마음이 동해 새로운 다이어트 몸짱만들기 계획을 다시 시작하는 것을 기대하게 된다.

과정상에서 Keep 의 인터넷 방식은 중국 헬스 영역의 황금시대였고, 요동하기 어려운 브랜드 평판을 건립했다.

그러나 Keep 이 가진 핵심경쟁력은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헬스 콘텐츠가 1200 셋트가 넘고 22 억 사용자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어 올해이후 Keep 은 연이어 최신의 운동 상품과 서비스를 출시했다. 온라인으로 공간을 장악하는 스마트 운동팔찌, 러닝머신과 스마트 자전거에 이르기까지, 또한 체지방측정계, 다이어트 식사, 운동주전자, 트레이닝 바지 등 운동관련 상품을 내놓았다. 운동애호가들에게 Keep 은 어디에나 있는 서비스 제공자이며 수행자가 되었다.

스마트헬스의 의의는 사용자 가치에 있다

많은 사람들이 Keep 을 Peloton 의 중국 버전으로 여긴다. 사실상 Keep 의 스마트 헬스 영역에서의 배치는 Peloton 보다 훨씬 앞섰다. 원인은 아주 간단하다. 미국시장에서 상품이 잘 되니 사용자가 벌떼처럼 붐비게 된 것이다. 그러나 중국시장에서 참신한 산업의 탐색자가 되려면 더 많이 해야 하고 더 잘해야 한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일체 측면에서, Keep 은 이미 그것을 실현했고 인터랙티브형 체험을 만들었다.



사진 5) 출처: 소후과기

전체 시스템배후에서 Keep 은 상방향 서비스 폐쇄순환을 구축하고자 힘을 쏟고 있다. 간단히 말해 한 대의 러닝머신은 더 이상 한 대의 '하드웨어'가 아니다. 콘텐츠의 단말 배포기계이며 동시에 사용자 운동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계이다. 그들은 오프라인의 입구가 되며 플랫폼이 사용자의 운동 생명주기와 요구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줘, 이를 기초로 삼아 더 높은 효율의 운동 솔루션을 주도록 한다. 데이터는 더욱 풍부해지고 서비스는 더욱 정교화되며 사용자의 플랫폼에 대한 밀착성은 점점 강화될 것이다.

동시에 중국 선진적인 스마트 하드웨어 산업에 혜택을 줄 것이며 Keep 도 다양한 방식의 합작을 시도하여 원원을 거두려 할 것이다. 샤오미 (小米), 창웨이(创维) 등 인터넷 기업과 연결하며 각 영역과 연결하여 더욱 많은 각도에서 데이터를 교류하고 더 많은 사용자와 연결하였다. '996' 젊은이들은 야근 후 Keep AI 스크린의 인터랙티브형 헬스상품 스마트 TV 로 10 개의 딥 스쿼트를 할 수 있고, 신속하게 자세 교정과 트레이닝 지도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시도를 하며 Keep 은 줄곧 핵심가치와 일치시키는 노력을 견지해왔다. 즉 플랫폼과 사용자가 연관되게 하고, 사용자의 상호작용이 발생하게 하는 것이다. 결국 사용자가 운동하려는 열정을 일으키는 것은 두 가지 요소에 지나지 않다. 하나는 높은 효율의 트레이닝 성과이고, 또 다른 하나는 좋은 사회적 커뮤니티의 분위기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올해 이후 논쟁이 있던 Keep 의 '경계없는 확장'이 합리적이고 필수적인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거대한 AIoT 를 투입하는 것이든, '먹고 입고 사용하고 운동하는' 전방위적 서비스를 포함하든, 핵심은 모두 사용자 가치로 귀결된다. Keep 가 제공하는 운동 솔루션과 부가 서비스 모두 사용자의 '운동'에 동력을 불어넣기 위함이다. '자율은 나에게 자유를 준다' 이러한 종류의 진실이 품고 있는 동력이 만억 규모의 헬스 시장을 여는 열쇠가 될 것이다. 헬스 시장의 배양과 사용자 습관 양성은 마찬가지로 시간을 필요로 한다. 아마도 Keep 이 리드하는 스마트 헬스 산업 또한 그것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3. 미중의 입장차이 - 서방의 중국 양자과학자 보고에 관한 중국 관영지 반박 (환구시보, 2019.12.28)

12 월 27 일 현지 시간으로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의 Strider 라는 보안 정보 회사가 중국의 양자 물리 기술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 FBI 배경을 지닌 이 보안 정보 회사가 발표한 보고서는 중국의 양자 물리 기술의 학술 발전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지도하는 정신'이 '매카시즘'에 관한 것이며, 글의 본의를 제멋대로 사용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등 비열한 방법을 통해, 중국 과학 아카데미 원사 판지엔웨이 (潘建伟)등 중국 양자물리학자들을 적나라하게 모함하고 모독했다.

이 글은 '양자의 용'이라는 제목으로 중국이 서방 정부의 기금과 학술 기구를 어떻게 이용하였는지, '(군사 및 민간) 양쪽에서 사용되는 양자 기술에서 초월을 실현하는 법'이라는 보고서로 총 22 페이지로 구성된다. 이중 세 번째 페이지의 소개 부분에서 이 FBI 의 '하수'회사는 선포하기를, 중국이 음모를 품고 양자 물리학자들을 서방 최상급 대학에서 공부하게 한 뒤 '문서화되지 않은 계약'을 통해 중국으로 귀국할 것을 요구하여, 중국의 과학 연구를 지원하도록 한다면서, 서방의 대학과 연구소는 이미 침투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양자 물리학에서 중국의 기술이 선두에 위치함을 암시하는데, 이 것이 '도둑질한 것'이라는 것이다.



The Washington Post

Democracy Dies in Darkness

China's top quantum scientist has ties to the country's defense companies

사진 1) 출처: 환구시보, '워싱턴 포스트' 보고서 원문 캡처 사진

이것이 서방 정부, 정보 기관 및 그들이 대변자로 사용하는 서방 언론이 마우스 피스로 사용하는 중국 과학 기술의 굴기에 대해 일반적으로 '악마화' 시켜 이용하는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이 보고서는 세 번째 페이지 소개 부분에서 중국 양자 물리학의 저명한 학자인 판지엔웨이(潘建伟)가 한편으로는 서방 학술 기구와 합작한다고 소개하며, 한편으로는 중국 군사 배경의 국영기업과 합작하거나, 판지엔웨이가 서방의 기술과 학술 프로젝트를 이용하여 중국의 군사 공업을 발전시키고 있다고 암시한다.

이어지는 내용 중 이 보고서는 '증거'를 보여주지 시작한다. 그러나 이러한 증거는 매우 터무니없으며, 거의 모든 내용이 중국 언론의 공개 보도 사실을 사실과 다르게 부분만 떼어 보여주거나 왜곡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이 양자 물리학을 '계략적으로' 서구 최고의 학부에서 학습하고 '문서화되지 않은 계약'을 통해 중국으로 귀국하도록 요구했다는 주장에서, 보고서에 제공된 증거는 <중국과학보>에서 발표한 기사에서 비롯된 것이다.

뉴스의 제목이 '판지엔웨이: 중국인도 아주 잘할 수 있는 과학'이라는 보도에서 판지엔웨이는 그 해 중국 과학 기술 대학에 양자 물리학 실험실을 설립하고 관련 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일찍이 국내 국외 양쪽을 다닌 것을 언급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실험실을 건립하고 한편으로는 양자물리연구에 종사할 의지가 있는 젊은 학생들을 해외로 보냈다. 여기에는 문서화되지 않은 약정이 있었는데 배움을 마친 후 반드시 중국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다 완전한 보도 맥락에서 보자면, 이것은 판지엔웨이가 중국 과학 기술 대학에서 양자 물리 실험실을 구성하기 위해 그와 학생들 사이에 한 약정에 지나지 않다. 그러나 이것이 도리어 미국 정보 회사에 의해 문장을 저자의 본뜻과 다르게 제멋대로 사용하여 중국 국가층면의 '음모'로 크게 왜곡하였다.



사진 2) 출처: 워싱턴 포스트지. 중국 양자과학자 판지엔웨이潘建伟

보도의 판지엔웨이와 중국 군사 산업 배경의 기업이 합작했다는 지적도 같은 사고 방식이다.

2017 년에 국유 기업 중찬중공(中船重工)의 고위층과 판지엔웨이는 한 차례 회견을 갖고 판지엔웨이와 합작하여 양자통신발전을 촉진하기를 희망했다. 중찬중공 공식 사이트에 등재된 보도를 보면 당시 양방은 예의를 갖추 서로 상대방의 영역에서 획득한 성과를 칭찬하였으며, 이 중 판지엔웨이는 중찬중공의 '교룡'호가 항공모함과 핵잠수함 등 민간용과 군사용 영역에서 세운 '국가의 중요 기기'라고 칭찬하였다.

그 후 2018 년 중국증권보의 보도에서 중찬중공의 관련 담당자는 회사의 향후 발전과 판지엔웨이와의 합작에 대해 언론에 말할 때 민간과 군사 분야에서 양자 물리 기술의 전망을 기대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이러한 평범하기 짝이 없는 담화내용이 오히려 FBI 의 하수 보안 회사에 의해 제멋대로 잘못 사용되었고, 판지엔웨이와 중찬중공의 합작이 군사영역의 '관건이 되는 증거'로 비약했다.

이 '터무니없는' 모함은 판지엔웨이가 부득이하게 미국 <워싱턴 포스트지>에 해명을 하게 했다. 그와 중찬중공의 합작은 군사영역을 전혀 포함하지 않으며 아주 평범한 인재 교육과 기술자문 방면에서의 합작이라고 말이다. 그는 또한 중찬중공의 관련 담당자가 언론의 일부 어법이 합작계약을 벗어났다고 분노하고, 이러한 변명을 교정할 것을 이미 요구했다고 했다. 판지엔웨이가 '워싱턴 포스트'에 중국 조선 산업과의 협력이 군사 분야를 전혀 포함하지는 않았지만 인력 훈련 및 기술 컨설팅에있어 매우 일반적인 협력을 분명히했다. 또한 CSSC 관련 담당자와 언론의 의견 중 일부는 협력 계약의 범위를 벗어 났으며 상대방에게 그 진술을 시정하도록 요청했다.

판지엔웨이는 또한 워싱턴 포스트에 그가 중찬중공이 요청하여 '과학위원회 부주임'직무를 한 것에 대해, 이 직무는 중찬중공의 인원에게 과학 지식을 보급하며 무엇이 양자물리인가라는 것을 알려준 것이라고 말했다. 판지엔웨이는 만약 이러한 서비스도 군사 항목이라면 올해 3 월 미국 에너지부가 요청하여 미국의 회의석상에 나가 중국 양자물리 발전에 관한 정보를 공유한 것은 미국 군대를 위해 일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나 판지엔웨이가 겪은 이러한 모독과 모함은 이 보도가 가장 악의적인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보도에는 중국 과학 기술 대학교의 24 명의 물리학자 명단이 있고 그들은 일찍이 모두 해외에서 유학하였음을 밝히고, 그들과 합작한 서방 학자까지 모두 나열하여 목록을 작성했다.

이는 사람을 근심시키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행동은 미국과 그 동맹국의 정보 부문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인가, 그리고 그들의 대변인인 일부 매체는 이러한 자료로 학자들을 괴롭히고 박해하는 것인가?

실제로 워싱턴 포스트지가 이 보도를 낼 때 이미 약간 '폐를 주는' 성질이 있었다. 이 보도가 등재한 뉴스의 제목은 '중국 정상급 양자물리과학자와 군사공업기업은 약간의 관련이 있다'는 보도에서 판지엔웨이의 회답을 요구한 것 외에도, 근거 보도에서 서방학술기구 명단을 열거하며 이러한 학술기구의 학자를 찾으면 그들이 보고중 판지엔웨이 등의 학자와 학술기구가 근본적으로 '사실과 다름'을 고발하는 회신을 요구했다.

이 학자들은 자신들은 이러한 사정에 대해 잘 알지못하고, 그들과 중국과의 합작은 학술측면과 기초 과학 연구에만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학술계의 인사가 말하길, 미국은 이러한 방식을 통해 중국 학자와 중국 학자와 협업하는 외국 학술기구를 억압하고 괴롭히는 것이 이미 일상적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 또한 많은 경우 중국측이 왜 '더 많은 일을 하고 적게 표출하는지', 심지어 과학자의 보도가 적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했다. 왜냐하면 보통의 경우 미국의 정보부문과 그에 협력하는 미디어 또는 '세탁'기관에 의해 왜곡되고 모함하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4. 중국 20 호 인공위성 성공발사 (봉황과기, 2019.12.27)

12 월 27 일 20:45 에 창정 5 호가 아득히 세번 돌아 하이난 원창(海南文昌) 발사장에서 하늘로 날아올라 20 호 위성이 성공적으로 궤도에 발사되었다.



사진 1) 출처: 중국운반로켓기술연구원(中国运载火箭技术研究院) 장정 5 호 로켓 발화

이것은 장청(长征)5 호 로켓의 세 번째 비행이다. 이전에 장우(长五) 로켓은 앞서 2016 년 11 월 3 일에 성공적으로 첫 비행을 한 후 2017 년 7 월 2 일에 두 번째 발사 임무를 수행했지만 위성을 궤도로 보내지 못했다.



사진 2) 출처: 중국운반로켓기술연구원(中国运载火箭技术研究院). 로켓몸체 조립



사진 3) 출처: 중국운반로켓기술연구원(中国运载火箭技术研究院). 조립작업

장우로켓 총괄 주임 설계사 황빙(黄兵)은 이전 발사한 장우 로켓은 더 높이 더 멀리 날아서 운반능력의 장점을 충분히 발휘한다고 소개했다. 이것이 썩하오(型号)팀이 2년이 지나 재시행한 발사임무였다. 그동안 개발자는 대량의 기술 연구와 실험 검증을 수행했다.



사진 4) 출처: 중국운반로켓기술연구원(中国运载火箭技术研究院). 로켓부품 합체



사진 5) 출처: 중국운반로켓기술연구원(中国运载火箭技术研究院). 발사팀이 로켓 테스트를 수행하는 모습

소개에 따르면 장우야오 3(长五遥三) 로켓은 200 가지가 넘게 기술 개선을 했고, 두 가지 측면에 중점을 두었다. 한편으로는 야오 2 로켓이 보인 문제를 제로화시키고 시험 검증하는 작업, 문제의 원인 찾기 및 숨겨진 위험 제거로 장우 로켓의 기술적 능력과 신뢰성에 대한 새로운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전 2 회의 비행 데이터 전체 분석을 기반으로 썩하옴은 로켓 설계를 최적화했다. '일부 로켓 섹션과 마찬가지로 구조가 단순하고 설계가 더욱 최적화되었다. 신뢰성을 더욱 향상시키는 동시에 운반 능력도 높아졌다.'



사진 6) 출처: 중국운반로켓기술연구원(中国运载火箭技术研究院), 로켓조립체 리프팅



사진 7) 출처: 중국운반로켓기술연구원(中国运载火箭技术研究院), 로켓조립체 운송

황빙은 장우야오 3 로켓이 여전히 실험 비행이며 장우로켓의 전체 계획을 심층 검증한다고 소개했다. 발사의 원만한 성공은 장우로켓 프로젝트의 개발에서 중대한 획기적인 사건이었으며, 이는 후속 정식 비행에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



사진 8) 출처: 중국운반로켓기술연구원(中国运载火箭技术研究院), 장우야오 3 로켓이 올려지고 있다

장우 로켓은 복잡한 거대 시스템 프로젝트이며, 우주와 같은 고위험 복합 거대 시스템에서 신뢰할 수 있고 제어할 수 있도록, 연구팀은 정교한 공정 관리의 사고와 방법을 도입했다.



사진 9) 출처: 중국운반로켓기술연구원(中国运载火箭技术研究院), 장우로켓 장소 이동

발사 임무 중, 썩하오팀은 발사 전 -13 시간의 세밀한 관리로 조사했으며, 각 직무 위치에서의 직무 책임, 운영 내용, 비상 계획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고 연결되어 발사 과정을 지속적으로 최적화시키는 기초가 되었다.



사진 10) 출처: 중국운반로켓기술연구원(中国运载火箭技术研究院), 발사팀이 로켓을 환송.



사진 11) 출처: 중국운반로켓기술연구원(中国运载火箭技术研究院), 장우야오 3 로켓이 탑 위에 우뚝 솟아있다

장우로켓은 로켓원(火箭院)이 총 연구 제작을 맡았고, 중국에서 가장 난도가 크고, 규모도 크고, 시스템 구조가 가장 복잡한 로켓이다. 저궤도 25 톤급, 지구와 같은 보조로 이동하는 궤도 14 톤급의 운반 능력이 현재 설치된 로켓의 운반 능력보다 2.5 배 이상 올라, 운반능력은 외국의 주류 대형 운반 로켓을 초월하여 중국의 자주적인 진입 공간의 능력을 크게 높였다.

이어서 장우 로켓은 중국의 달 프로젝트 3 기에 직접 활용될 것이다. 유인 우주 정거장 건설, 화성 탐사 등 중대한 전문 임무를 맡으며 다양한 지구 궤도 대형 화물과 기타 우주 탐색 임무 화물의 발사에 쓰일 것이다.

ISSUE 및 시장동향

1. 라이브방송 판매, 인터랙티브 드라마, 미니 드라마...2020 년 콘텐츠산업
트렌드방향 - 티타늄미디어 제공

사진 1) 출처: 티타늄 미디어

2019 년은 변화로 가득찬 해였다. 특히 고도로 활발하고, 풍부하고, 소비자 언어 환경과 잘 부합되는 콘텐츠 산업이 더욱 그러하다.

IP 드라마의 리메이크, 쇼트 클립 인큐베이션, 다시 인터랙티브형 드라마와 미니 드라마 형식에 이르기까지 콘텐츠 플랫폼은 거의 '월'단위로 콘텐츠 형식을 모델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콘텐츠로 가득 찬 세상에서 지속적으로 시청자가 좋아할 꺼리를 찾고 있다. 재미있는 것은 이 과정에서 기술은 점차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기술 + 콘텐츠'는 점차 전면으로 이동하여 콘텐츠 산업의 발전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변화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2019 년도 거래를 재개할 가치가 있는 해가 되었다. '일상적이 된 변화'는 2019 년 산업 발전주기를 귀중한 샘플로 만든다. 거래를 재개한 후, 우리는 일련의 복잡하지만 정기적으로 변화하는 추세를 쉽게 볼 수 있고, 실패의 잠재 원인을 대체할 수 있으며, 성공의 관건이 되는 포지셔닝을 정할 수 있다.

아마도 2020 년에 나타날 새로운 트렌드는 이미 2019 년에 서두를 쓰기 시작하였다.

2019 년 첫 번째 변화: 산업이 콘텐츠에 힘을 준다

최근 <트렌드 파트너>를 보면, iQiyi (爱奇艺) 전체 화면상태에서 좌측하단의 많은 버튼이 무슨 작용을 하는지 줄곧 답답해한다. 시험삼아 몇 번 한 뒤, 이것이 화면 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버튼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누르면 화면에서 추천하는 것이 누구이고, 어떤 상품이 있고, 직접 구매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사진 2) 출처: 티타늄 미디어

식별은 실제 새로운 기술이 아니며, PC 시대에 Tudou(土豆网)도 비슷한 시도를 했다. 다른 것은 이번에는 모바일 단말기에 직접 배치하고 범용 기술을 사용하여 시청자, 콘텐츠, 콘텐츠 내 사물과 매끄럽게 연결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라이브방송의 흥기, 전자 상거래의 인기 여부에 관계없이 이는 시청자가 단순히 콘텐츠를 보는 것만은 일찍이 오랫동안 만족하지 못했음을 어느 정도 반영한다.

콘텐츠의 주요 기능은 무엇인가? 과거 긴 시간동안,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기본적으로 고정되어 있었다. 즉, '정보의 전달'을 완성하는 것, 즉 사람들이 정보를 효과적으로 획득하여 학습, 인식, 판단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돕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콘텐츠 표현이 풍부해지고 콘텐츠가 소셜 네트워킹 시대로 들어간 후, 사람들의 일상 생활에서의 기능 또한 극렬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점점 더 많은 콘텐츠가 '정보 전달'의 역할에서 탈피되기 시작하여 시간을 때우고, 감정을 조정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소비품이 되어 산업내에서 더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좋은 측면을 가지고 있다. 적어도 콘텐츠 산업은 더 많은 고객군을 확보하고, 더 큰 시장 잠재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만, 산업이 직면한 문제는 보다 직관적이다.

이 새로운 트렌드는 '콘텐츠'가 보다 유연한 방식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도록 요구하며, 이 요구 사항은 동시에 콘텐츠 생산 비용을 증가시켰다. 예를 들어 현재 창작내용은 어떤 매개체에 적합한지, 어떤 플랫폼에서 전파하는 것이 적합한지, 어떤 원소가 먼저 관심을 일으킬 것인지, 이러한 문제 모두가 전파 효과에 거대한 차이를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이 새로운 문제는 또다른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 개인 또는 소량 제작자는 창작비용의 증가로 인해 콘텐츠 제작의 안정적인 아웃풋을 보장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콘텐츠 자원은 대규모화된 산업 생산 시스템으로 지속적으로 기울어지며, 동질화 및 대량 생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2019 년의 이러한 큰 추세는 자연스럽게 콘텐츠 운반체가 더 풍부해지고, 기술이 콘텐츠에 더욱 전면적으로 융합되고, 산업에서 콘텐츠가 더 주동적으로 기능하는 것을 강조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앞에서 언급한 '트랜드 파트너'에서 시청자는 프로그램을 시청할 때 'AI 레이더'를 사용하여 콘텐츠의 '피드백'을 직접 얻을 수 있다: 저 사람이 누구이고 입고 있는 옷이 무엇이고, 같은 옷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 다 보고난 후 구매로 전환할 수 있다: 동시에 프로그램의 '상업화'를 지나치게 고려할 필요없이, 기본 구조가 모두 BJ가 상품을 전시하는 것 위주이고 청중은 소비자로 전환되어 최종 요구를 전달한다. 전시 스크린이 TV에서 인터넷으로 전환한 것뿐이다.

2019년 크게 붐업된 '왕홍 제품판매' 열기에서도 비슷한 사고를 볼 수 있다. 많은 산업 매체의 설명에서 '왕홍 제품판매'는 'TV 쇼핑의 리메이크'로, 기본 형식은 BJ가 제품을 전시하고 청중이 최종 소비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전시 플랫폼이 TV에서 인터넷으로 변경된 것뿐이다.



사진 3) 출처: 티타늄 미디어/강씨(康熙) TV 쇼핑 장면. 이미 충분히 혼란스럽다.

2019년의 '왕홍 제품 판매'(또는 더 큰 개념의 '콘텐츠 전자 상거래')는 분명히 다른 차원의 솔루션이다. 예를 들어, 콘텐츠의 '상품'은 더 이상 '전시'기능이 아니라 '도화선'과 유사하며, 콘텐츠에서 구매 채널로의 이동을 완성할 수 있고 콘텐츠 보충과 연동될 수도 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오늘날의 콘텐츠는 산업 역량 강화에 따라 진정으로 '언어를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산업의 촉진하에 각 사용자의 시각에 따른 요소가 모두 '건설적인 보충'이 될 수 있으며 심지어 '새로운 콘텐츠'로 역할을 수행하여 콘텐츠 촉진에서 더 효과적인 전파로 완성될 수 있다.

2019년 두 번째 변화: 관중이 능동적 상태로 이동

만약 과거 오랜 시간동안, 콘텐츠 산업이 줄곧 전통적인 '크리에이터 아웃풋, 관중 수용'이라는 이원 구조를 오랫동안 유지해 왔다면, 2019년 이후 가장 큰 변화는 이 이원 구조에서 타파한 것이다. 콘텐츠 창작자는 관심을 기술 혁신에 두는 것이 유익해졌다. 기술을 사용하여 콘텐츠를 보다 가변적이고 유연하게 하고, 관중이 더 이상 고정적인 '수용'상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콘텐츠에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

물론 '콘텐츠 창작 과정 중 사용자 참여'는 2019 년에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다. 이전에도 영상 댓글 자막과 같이 관중이 콘텐츠에 더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이 적지 않게 있었다.

영상 댓글 자막과 유사하게 '평가' 기능으로 콘텐츠에 대한 적극적인 피드백을 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콘텐츠의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으며, 심지어 콘텐츠의 핵심적 기능이 될 수도 있다.



사진 4) 출처: 티타늄 미디어. 댓글자막으로만 제작한 '아이씨티에루(阿姨洗铁路)'가사 MV

그러나 평가나 댓글 방식은 여전히 참여가 '제한적'이다.

오래 전부터 관중은 콘텐츠에 참여할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금상첨화'에만 속한다. 콘텐츠 제작의 주도권은 여전히 창작자 또는 플랫폼의 손에 달려 있으며 관객이 완성하는 것은 종종 그저 2 차 창작-콘텐츠 경험에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없는 것에 한한다.

이러한 상황은 2019 년에 급격히 변화했다. '청중이 콘텐츠에 참여하기 시작'한 추세는 2019 년에 확대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콘텐츠에 참여할 수 있는 더 많은 방법을 갖게 되었을뿐 아니라 점차 '적극적인 참여'능력을 얻게 되었다. '주동적인 참여'를 통해 관중은 영향을 미칠 기회를 얻거나 심지어 콘텐츠가 가져오는 체험을 직접 정의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인터랙티브형 영상은 일본식 galgame 게임 콘텐츠 창작 방식에서 영감을 얻어, 2019 년 대량으로 사용되기 시작했고 수많은 폭발적인 창작물을 부화시켰다. 중국에서 첫번째로 '상호 작용'을 메인 방식으로 하는 정식 영상작품 '그의 미소(他的微笑)'가 6 월 iQiyi 플랫폼에서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사진 5) 출처: 티타늄 미디어. '그의 미소'내 줄거리 분기점

전통적인 영화 드라마 작품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줄거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등장 인물의 최종 운명이 어떠한지, 장면이 전환되는 방식과 같은 관건이 되는 요소에서 '인터랙티브형 영상'은 완전히 관중으로 하여금 그것을 결정하게 한다. 결과의 관점에서, 즉 콘텐츠가 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경험은 관중의 개인적으로 축적된 경험, 감정, 흥미 선호에 의해 결정되며, 이는 콘텐츠 창작에 더 많은 가능성을 제공한다.

이러한 유형의 콘텐츠 제작 전략은 산업 생산 모델을 재정의할 뿐만 아니라 일반 네티즌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2019 년 하반기에는 WeChat 이 대표하는 여러 신흥 쇼트클립 커뮤니티가 분기 드라마 형식을 업로드했으며, '분기 드라마' 창작콘텐츠에 대해 지원했다.

총체적으로 2019 년, 관중이 대량으로 업계 콘텐츠 제작 경로로 '초청'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종류의 '초청'은 실질적으로 콘텐츠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었고, 사용자와 콘텐츠의 상호관계, 창작자의 성장 경로 모두 새로운 각도에서 촉진되었다.

2019 년 세 번째 변화: 콘텐츠에 만물을 포함

세 번째 변화는 콘텐츠가 만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이전의 두 가지 변화보다 더 점진적이고 더 '일상적'으로 '콘텐츠 연동의 정규화'다. 예를 들어 국민 만화 IP 슬램 덩크의 모바일게임을 새로 쓸 수 있거나, 예원 4(叶问 4)의 주창작물이 각 플랫폼에서 다른 내용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소셜 마케팅의 일부이며 소셜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의 특성에 맞는 프로모션 전략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단일 선택에서 산업 컨버전스까지 이러한 전략을 점진적으로 개발함에 따라 콘텐츠 산업이 공동인식을 형성하고 있음을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콘텐츠의 가치를 완전히 발굴하고 콘텐츠의 가치를 완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연동되는 것이 콘텐츠와 '제목이 맞아'하고 이는 소재목에서 말한 '콘텐츠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추세는 콘텐츠의 효과적인 판촉을 완료하기가 어려워졌고 산업화 프로세스를 촉진했다. 즉, 다양한 요구의 상황에서 노동 분업이 더 많이 발생했다. 제도화되고 산업화된 운영은 불가피한 선택이 되었다.

MCN의 원래 의도는 개별 창작자의 선천적 결점, 즉 '창조'능력이 본래 감성행위이며 여러 주관적 요소의 영향으로 작품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시키기 어려워 MCN이 일종의 대응 솔루션이 된다는 것이었다. 기관화된 운영을 통해 다량의 샘플과 시장 데이터를 축적하는 전제하에 성숙한 시스템을 형성하고 콘텐츠 생산은 산업화 프로세스에 진입하게 되며 작품 수준과 산출량을 보장하게 된다.

따라서 소셜 네트워킹 시대에 MCN은 '콘텐츠 산업'에서 일반 제작자보다 큰 이점을 제공할뿐만 아니라 사용자를 유지하기 위해 콘텐츠 활성도와 품질로 사용자를 유지해야 하는 플랫폼에서도 매우 환영하게 된다.

콘텐츠 생태계에서 콘텐츠는 '개별적인 형태'로 고립되어 살아남을 수 없게 된다.

결론

2020년 콘텐츠 산업에서 어떤 새로운 트렌드가 나타날 것이며, 그 중 많은 것이 이미 2019년에 시작되었다. 예를 들어 '만물 모두 콘텐츠가 될 수 있다'라는 추세에 따라 보다 유연하고 편리한 콘텐츠 제작 방법의 파생은 거의 시간 문제다.

특히 콘텐츠 산업이 끊임없이 새로운 이익을 창출하는 상황에서, 코너에서 추월하려는 후발주자들은 이 과정을 촉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아마도 상반기에 사람들은 새로운 이정표가 될 '새로운 모델'을 탄생시킬 것이다.

그러나 2020년에 콘텐츠 산업을 예측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없이 가장 어려운 일이다. 우리가 2019년의 리뷰에서 가장 크게 느낀 것들과 같이 고전적인 변증법 이론을 사용하여, 산업의 정상적인 상태를 허용하자면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변화 자체'일 수 있다.

따라서 트렌드 인식과 비교하여 콘텐츠 산업에서 점차 강조하는 '단일 주문'을 강조하는 것에서 '지원'으로 전환하고 있는지, 또는 '창작자의 일방적 아웃풋'에서 '관중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동하고 있는지, 추세 인지와 비교하여 '끊임없는 적응 변화'는 아마도 이 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생존 기술일 것이다.

2.창업자가 쫓겨난 뒤 기업의 운명 - 봉황과기 제공



사진 1) 출처: 봉황과기, Uber의 공동창립자 칼라닉

12월 27일 베이징 시간, Travis Kalanick, 미국 인터넷 예약 차량의 거두 Uber의 공동 창립자이자 장기 CEO인 Travis Kalanick은 화요일에 그의 남은 주식을 매각하고 이사회에서 사임하면서, 그의 손으로 성공을 향해 가려던 이 회사와의 마지막 관계가 끊어졌다.

Kalanick은 2009년 Uber를 공동 창립하고 이듬해 CEO를 담당했다. 2017년 Kalanick은 일련의 실수를 저지른 후 투자자들로부터 CEO의 사임을 강요받았다. 그의 잘못은 집단 따돌림과 여성을 괴롭히는 직장 문화를 포함하며, 회사의 자율 주행기술 비밀을 절취하여 Google의 모회사인 Alphabet에 의해 법원에 고소되었다. Kalanick은 후임자를 찾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우버의 이사회에서 충분한 시간을 보냈고 올해 초 그의 주식을 방출하기 시작했다.

Kalanick은 여기서 어디로 가나? 과학 기술 회사 창립자가 쫓겨난 스토리는 이전에 실리콘 벨리에서 여러 차례 일어났으며 일반적으로 네 가지 결말이 있다.

복귀: Apple 설립자 Steve Jobs, Twitter 설립자 Dorsey

쫓겨난 다른 모든 기술 회사의 창립자들이 Apple 공동 창립자인 Steve Jobs의 경험을 재현하기는 아주 어렵다. 잡스가 1997년에 애플로 돌아왔을 때, 애플은 파산까지 불과 몇 주밖에 남지 않았었다. 그는 약간의 잘못된 결정을 중단하고, 성능이 저조한 제품 라인을 무자비하게 폐쇄한 다음, 인기있는 일련의 제품인 iMac, iPad, iPhone과 iPad를 창건하여 결국 Apple을 세계에서 가장 가치있는 회사로 만들었다. 잡스가 애플로 돌아오기 10년 전, 그는 픽사 애니메이션의 지분을 대부분 사서 장래에 엄청난 경제적 수입의 토대를 마련했다.



사진 2) 출처: 봉황과기, 스티브잡스

트위터 공동 설립자인 Jack Dorsey도 비슷한 업적을 달성했다. 2008년에 CEO 직무에서 해임된 Dorsey는 2015년에 회사를 다시 장악했다. 먼저 임시 CEO로, 이후에는 완전한 CEO가 되었다. 회사를 장악한 후 트위터의 월 평균 활성 사용자 수가 약 3.25억 명 정도로 정체되었지만 (현재 지표는 수익성 있는 일일 활성 사용자로 변경됨) 핵심 비즈니스는 약간 개선되었으며,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매출은 37% 증가했다. 동시에 비미국통용회계기준(non-GAAP)의 순이익은 3배 이상 증가했다.

그 과정에서 Jobs와 Dorsey는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 새로운 기술을 확보하는 데 많은 에너지를 투자했다. 그들과 마찬가지로 Kalanick은 또한 새로운 스타트업 CloudKitchens를 구축하는데 많은 시간을 사용했다. 만약 Uber가 계속해서 실적이 저조한 경우 (IPO 이후 주가가 30% 이상 하락) Kalanick은 Uber의 전철을 다시 밟지 않는 방법을 터득했고, 수익성 있는 비즈니스를 구축하였다. 그러면 그는 재기한 창립자의 몇 안되는 사례에 포함될 것이다.

넷스케이프 창립자 앤더슨

비록 Dorsey가 열외라고 할 수 있지만, 성공한 기업을 두 개 연속으로 만들 수 있는 창업가는 아주 적다. 일부 성공한 창립자는 같은 회사에서 여전히 창업자의 역할을 맡는다. 예를 들어, Amazon 설립자 Jeff Bezos는 전자 상거래 주도적인 위치를 사용하여 세계 최대의 기업 소프트웨어 회사 중 하나인 아마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AWS)를 만들었다.

Marc Andreessen은 인생 제 2막을 시작한 창립자다. 최초의 인기 웹 브라우저인 Netscape 파일럿 개발자로서, Anderson과 다른 사람들은 인터넷 버블 시대에 가장 성공적인 회사 중 하나인 Netscape를 공동 창립했다. 그러나 Microsoft는 Windows 시스템에 브라우저를 끼워넣는 방식으로 Netscape를 파괴했다. 그 후 Netscape는 AOL에 의해 인수되었다.



사진 3) 출처: 봉황과기, 앤더슨

10 년 후 Anderson 은 Anderson-Horowitz Fund 를 공동 설립했다. 여기서 Anderson 은 얻기 어려운 경험을 이용하여 실리콘 벨리에서 가장 성공적인 벤처 캐피탈 회사 하나를 설립했다. 벤처 캐피탈 분야에 진출하는 다른 유명한 기업가로는 전문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 LinkedIn 공동 창립자인 Reid Hoffman (현재 Greylock Partners 의 파트너) 과 전 AOL CEO Steve Case 가 있다. (Revolution Partners 를 공동 설립).

이와 관련하여 CloudKitchens 도 성공할 수 있다. Kalanick 은 또한 자신의 경험과 자금을 완전히 관련이 없는 다른 회사로 바꿀 수 있다.

역만 장자형: Microsoft 공동 창립자 Allen

Microsoft 의 공동 설립자 Paul Allen 은 Microsoft 가 설립된지 7 년 만인 1982 년 건강상의 이유로 회사를 떠났다. 그러나 그는 대부분의 Microsoft 주식을 유지했으며 여러 번 자신을 억만 장자로 만들었다. 그 과정에서 앨런은 NBA 팀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와 NFL 팀 시애틀 시호크스의 인수를 포함하여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여러 관심사에 바쳤으며, 시애틀에서 부동산 사업을 활발히 전개했으며 사람의 뇌를 연구하는 연구소를 설립했다. 그는 또한 소형 잠수함이 장착된 세계 최대의 요트 하나를 구입했고, 록 밴드의 가수겸 기타리스트가 되었으며, 음악 아이콘 Jimi Hendrix 를 위한 박물관을 지었다. 2018 년 10 월, Allen 은 암으로 사망했다.

여러 면에서 Kalanick 의 마음은 Uber 에 있었으며 Allen 만큼 광범위한 흥미를 갖고 있지 않았다. 게다가, Allen 의 순자산은 1999 년에 약 300 억 달러로 정점에 달했으며, 사망했을 때에도 여전히 200 억 달러를 가졌다. 반면, Kalanick 은 Uber 주식으로 30 억 달러 미만을 판매하여 오늘날 NBA 팀을 사기가 아주 어렵다.



사진 4) 출처: 봉황과기, 폴 앨런

사라진 유형: Cisco, Tesla 공동 창립자

비록 복귀와 인생 제 2막 모두 고무적이지만, 그들은 아주 특별한 예외다. 대부분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회사 설립자는 한 번만 성공할 수 있다. 그들은 회사를 떠난 후에도 훌륭하고 성공적인 삶을 계속할 수 있지만, 그들이 만든 회사처럼 대중의 시야에 다시 들어가는 일은 거의 없다.

예를 들어, 과학 기술 산업의 역사에 가장 정통한 학생만이 Leonard Bosack 과 Sandy Lerner 의 이름을 알 수 있다. 이들은 Cisco 의 공동 창립자였으며 Cisco 가 1990 년에 상장된 후 추방되었다. 1995 년 John Chambers 가 Cisco 의 CEO 가 된 후, Cisco 는 집집마다 아는 이름이 되었으며 세계에서 가장 가치있는 과학기술 회사가 되었다.

Martin Eberhard 와 Marc Tarpinning 도 알려져 있지 않다. 그들은 2003 년에 Tesla 를 공동 설립했으며, 전 PayPal 의 경영자 Elon Musk 로부터 초기 투자를 받았다. 머스크의 기괴한 리더십 아래, 테슬라는 마침내 수년간의 고군분투 끝에 중요한 자동차 제조업체이자 상징적인 브랜드가 되었다.

이 전임자들과 비교했을 때, Kalanick 은 다른 산업 이미지를 확립했고 더욱 유명하다. 그러나 명성은 모든 사람들보다 못하다. 다른 창립자들이 떠날 때의 다른 회사들에 비해 Uber 는 규모가 훨씬 더 크고, 시장 가치가 더 높은 회사였다. 비록 이렇다해도 Uber 가 계속해서 하락해 큰 손실을 입는다면 투자자들이 Uber 의 최종적인 이윤 계획을 믿을 수 없게 되고, 그렇다면 Kalanick 은 실리콘 벨리 역사상 특히 평범한 시기에 아주 좋은 '주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진 5) 출처: 봉황과기, 테슬라 공동 설립자 Tappening

3.2020 년 8 대 돈버는 아이템과 중국 경제 4 대 트렌드 – 창예방 제공



사진 1) 출처: 창예방创业邦

중국 경제의 4 대 전환점

I. 첫 번째는 중미 관계가 주요 전환점

미국이 세계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하는 '60 % 법'이 있다. 다른 국가의 경제 규모가 미국의 60 %에 도달하고 강력한 성장 추세를 유지하여 미국을 빠르게 추월할 수 있을 때, 미국은 분명히 그것을 적수로 간주하여 상대의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할 것이다.

오늘날 소련, 일본 또는 현재의 중국 모두 예외일 수 없다. 60 %의 숫자가 미국의 심층에서 '마법의 장애물'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무역 전쟁은 오래 되었지만 미중 실력 비교의 급격한 변화에 기인한다. 1972 년 외교 관계가 성립되었을 때 중국의 GDP 는 미국의 5 %에 불과했으며 현재 중국의 GDP 는 이미 미국의 66 %에 이르렀다.

중국 경제가 6 %의 속도로 계속 성장하고 미국 경제가 최상의 상황을 기준으로 3 %로 계산되면, '145' 계획 말인 2025 년에 중국의 GDP 는 미국의 80 %가 되고, 중미'전쟁'은 전차 현실이 된다.

이는 필수적으로 3 가지 변화를 가져온다.

1) 미국이 중국 최대 수출국이며 당사 제품에 대한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완전히 다른 시장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외부 수요의 긴축은 새로운 일상상황이 되고 중국의 대외 경제는 조정해 직면하게 된다.

2) 미국은 중국의 기술 도입을 막고 중국의 해외 투자를 경계하고 있어, 중국이 외국 기술과 브랜드를 사용하는데 더 많은 장애물이 될 것이며 과학 기술 혁신이 최우선 과제가 된다.

3) 미국과의 '일대일'협상에서 중국은 관세 인하, 시장 개방, 지적 재산권 보호, 국유 기업의 보조금 삭감 등의 측면에서 미국의 높은 압력에 직면하고 있으며, 중국이 배당 경제 단계에서 규칙 경제 단계에 들어가도록 강요하고 있다.

2. 산업 대개편

국제적으로 미국은 제조업의 회귀를 촉진하기 위해 '재산업화'전략을 시행했으며 저소득 국가는 비용이점으로 인해 노동 집약적 산업의 유입을 가속화했다. 이에 중국이 의존했던 저렴한 노동형 모델도 변경해야 한다.

중국은 산업화의 후기 단계에 접어 들고 5G 로 표지된 새로운 기술 혁신을 시작했으며 정보 산업, 스마트 산업, 생명 산업 및 녹색 산업 등과 같은 새로운 경제 산업이 전면적으로 시작되었다.

현재 일부 전통 산업이 재조정되고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산업에서 80 년 역사를 가진 폭스 바겐 비틀은 2019 년 7 월에 생산을 중단했다. 비틀즈는 일찍이 연간 5 백만 대를 팔았으나 이제는 계속 줄어들고 있으며 2016 년에는 단지 2.5 만 대만 팔렸다.

ZARA 의 모회사인 Inditex 는 2018 년, 전해 순이익이 5 년간 가장 낮은 기록을 세웠으며, New Look 은 2018 년에 7430 만 파운드를 잃었고 H & M 은 매장 개설 속도를 늦췄다.

이러한 관점에서, 신규 동력 전환을 통해 일부 산업이 개편으로 이어질 것이다.

3. 구역발전 대연동, 단일 개발에서 공동 개발로 전환

지난 40 년 동안 각지방은 자본, 기술 및 인재를 유치하는데 경쟁해 왔으며 중국 경제는 빠르게 발전했지만, 천편일률 현상이나 고르지 않은 지역 개발과 같은 작은 문제도 있었다.

이제 중국의 도시화는 도시군과 대도시 지역의 진화 단계에 들어섰으며, 현재'19 + 2'도시군을 개발하고 34 개의 도시권역 건설은 지역의 작은 그룹의 붕괴로 이어지고 지역 협력 연동식 발전의 추세로 나아갈 것이다.

이를 고려할 때, '145 계획' 기간 '경쟁'이라는 개념을 고수하는 대신 새로운 지연을 찾아 조정하는 것이 좋다.

4. 비즈니스 모델의 대변혁

한편된으로는 '배당 시대'가 사라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과학 기술 시대'가 시작되었다.

산업문명은 이미 극에 달해, 인공 지능, 사물 인터넷, 생명공학으로 대표되는 신기술이 세상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비즈니스 모델은 백화 나무 숲에서 열대 우림 시대로 진화했다.

소위 백화 나무 숲은 원래의 비즈니스 모델이 대부분 고도로 동질화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언뜻 보기에 모두가 같은 종이며 높건 낮건 성장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열대 우림은 생태계 개념으로, 이 생태권에서 모든 종이 공생공존하고 이끼조차 없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는 비즈니스 모델을 입구 찾기, 배당금 잡기, 무역 산업 기술, 기술 산업 무역, 사업 감정의 5 단계로 요약한다.

어떤 방식이건 영원히 성공할 수는 없다. 시대를 건너 진화하려면 연속하고 재생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셰익스피어의 희곡 <폭풍우>에는 '모든 것은 지나간다. 모두 서막이 된다.'라고 씌어있다.

휘황찬란하건, 경영이 참담하건 중국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4 가지 주요 전환점이 오고 있다. 지역과 기업은 미래를 두려워하거나 과거를 붙잡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 현재 상황을 따르고 추세를 파악해야 한다.

최신 8 개의 돈 버는 산업

소비의 향상과 함께 사람들의 효율성 개선, 만족스러운 경험, 선도적인 문화에 대한 요구로 인해 많은 새로운 경제 산업이 부상했으며, 최소 8 개의 새로운 산업이 미래에 새로운 트렌드가 될 것이다.

1. 야간 경제 굴기

올해 오일절 기간 중국인들은 야간에 하루 소비의 29.92 %를 소비했다.

상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상하이의 야간 판매량은 낮의 50 %를 차지하고 충칭의 요식업 매출의 2/3 는 야간에 실현되며 광저우 서비스 산업 가치의 55 %는 야간 경제에서 비롯된다.

'야간 경제'는 시장이 주도하는 자발적 활동으로, 하루 동안 피곤한 사람들은 야시장에서 다양한 여가, 오락 및 소비를 수행하여 피곤한 마음과 몸을 달래고 생활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다. 이 소비는 Maslow의 수요 계층 이론을 준수하며 도시 소비 경제를 강력하게 확장하고 보완한다.

이제 각 주요 도시들이 새로운 경쟁 단계에 들어섰으며, '야간 경제' 고유의 3 차 산업 서비스 속성은 도시 경쟁의 새로운 차원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 정부는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도시에는 세련되고 트렌디한 현대 비즈니스와 시장화와 풀뿌리화된 특색있는 야시장 경제가 필요하다.

2. MICE 는 유행 산업이 된다

전시 경제는 경제 가치를 가져다줄 뿐만 아니라 도시의 운명을 새로 쓴다. 충칭시 상무위원회의 통계에 따르면 2018 년 충칭의 다양한 전시 활동으로 인한 직접 수입은 176 억 위안이며 소비는 1,498 억 위안을 촉진시켰다.

우전(乌镇)은 세계인터넷 컨퍼런스로 인기를 얻었으며 '우전은 매우 바쁘다'는 시기적인 소문과 함께 G20 정상 회의는 항저우에서 물결쳤다.

성대한 컨퍼런스가 한 도시에 무엇을 가져다줄 수 있는가? 미국의 라스베거스를 보면 알 수 있다.

라스베거스는 나중에 '세계 회의의 도시'로 알려졌으며 매년 약 4,300 만 명의 방문자 중 14 %는 전시 회의 때문이다.

라스베거스 컨퍼런스 장소 면적은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지역이지만 경제적 혜택은 제일이다. 회의전시가 가져오는 수입이 매년 80 억 달러를 넘는다.

3. 생명 공학 문명

최근에는 유전자 시퀀싱 및 유전자 편집과 같은 산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15 년 초 중산대학의 황진(黄军) 교수는 정상적으로 발달하지 못한 인간 배아에 대한 48 시간 유전자 편집 실험을 수행했다. 그러나 유전자 편집 기술의 발명가인 Jennifer 를 포함한 집단적 반대를 만났다.

일시에 도덕론과 음모론이 대적했으며, 이들에게는 다음 두 가지 논리가 있다.

한편, 유전자 편집은 자연의 법칙을 어기고, 유전자 변형을 통해 유전자 반전을 달성하고 자연 법칙으로부터 벗어나 '슈퍼맨'이 되는 등 예측할 수 없는 위험 가능성을 갖고 있다. 더욱이, 유전자 편집이 인공적으로 고도로 표적화 된 '바이오-아톰 폭탄'을 생성하기 위해 사용되면, 단일 군인없이 대량 학살을 달성할 수 있다. '천이 유전자는 중국에 의한 서방 국가의 사망에 대한 일급 비밀 계획', 'SARS 바이러스는 중국에 대한 유전적 공격'등이 상상의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

중국의 바이오 산업의 전반적인 개발은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지만 기본 연구의 격차는 약 5 년이며 산업화의 격차는 15 년 이상이지만 일부 측면에서는 주도적으로 시작되었다. 특히 2016 년 초 사천 대학교 화서병원(华西医院)은 유전자 치료에서 유전자 편집 항암 치료의 첫 임상 시험을 시작했고 이는 미국보다 최소 2 년을 앞선 것이다.

앞으로도 중국은 여전히 인구 규모가 크며 정책이 보다 융통성이 있어, 세계 생명공학 기술을 먼저 시험할 수 있는 곳이 될 것이다.

4. '무인 공장'이 주류, 신제조 양극화

이제 인터넷 거대 기업은 'Internet +'와 'AI +'의 양대 신 무기를 사용하여 전통적인 제조 산업을 전면적으로 재배치하고 밥그릇을 빼앗아 가고 있다.

Ma Yun 은 신제조의 첫 발사를 쏘아 '10 만 ZARA 재건'을 시작했다. Alibaba Cloud 는 타오공장과 협력하여 스마트 생산 라인을 혁신하여 생산을 6 % 늘리고 교부주기를 10 % 단축했다.

인터넷 대기업 중 바이두는 자율 주행을 위한 'C 포지션'을 확보했으며 애플은 많은 AI 스타트업에 인수했으며 알리바바는 싸이스지커지(寒武纪科技), 선지엔커지(深鉴科技), 나이능(耐能), 아오지에커지(翱捷科技) 등 5 개의 칩 회사에 투자했다.

인터넷 거인과 산업 거인은 서로 싸우고 있지만 결국 서로를 포용하고 같은 목표를 달성할 것이다. 둘 다 신흥 생산력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의 새로운 제조에는 두 가지 특성이 있다.

첫째, '무인 공장'은 새로운 제조의 주류가 될 것이다. 미래에는 공장이 사물 인터넷 (IoT)을 통해 주문을 받은 후 AI 는 설계, 생산, 물류, 배송, 장비 검사 및 유지 보수에 이르기까지 최적의 제조 프로세스 및 일정을 독립적으로 프로그래밍하고 설계하여 완전한 '무인화'를 실현할 수 있다.

둘째, 신제조 기업의 생태는 초대형과 초소형의 양극이 공존할 것이다. 미래에 새로운 제조 회사는 전체 산업 체인의 최적화 배치를 달성하기 위해 거대한 '무인 공장' 또는 '무인 산업단지'가 될 수 있으며 또한 '가정식 소제작'형식의 개인 스튜디오로 되어 극한의 개성화와 체험화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다.

5. 수면 경제가 아주 핫함

중국인의 수면상황은 얼마나 나쁠까? <2018 년 중국 수면 지수 보고서> 따르면 2013 년부터 2018 년까지 중국인의 1 인당 평균 수면 시간은 8.8 시간에서 6.5 시간으로 감소했으며, 평균 38.2 %의 중국인이 수면 문제를 갖고 있는데 이는 세계 평균보다 11.2 % 높다!

그중 80 후와 90 후는 수면 장애의 주력군이 되고 있다.

수면 경제 또한 뜨거운 경제 현상이 되었다. Bosi Data 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7 년 중국의 수면 개선 시장 규모는 약 2797 억 위안이었다. 멜라토닌, 수면 베개, 수면 향낭과 같은 전통적인 제품에서 '블랙 테크놀로지'로 명명된 수면 팔찌, 불면증 패치, 수면 스프레이, 수면 스피커 등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수면을 도와주는 신기계'가 탄생했다.

불면증 지역 사회, 불면증 심리 상담과 기타 수면 관련 앱도 출시되었으며 '수면 동반'경제를 낳기도 했다. Taobao 는 전문적으로 Good Night 문자메세지, 수면 가이드 전문가 지원과 같은 새로운 서비스를 판매한다.

미국의 출근족 중 수면 부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GDP 의 2.28 %에 해당하는 4110 억 달러에 이르렀으며, 일본의 경우 손실이 최대 1380 억억 달러, 독일은 매년 600 억 달러를 잃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개인 건강의 관점뿐만 아니라 사회 생산의 관점에서도 수면 경제가 크게 촉진될 것이고 전망은 매우 유망하다.

6. 게으름 경제, 게으름은 인간 진보의 원천

'게으름 경제'는 점점 더 대중화되고 있다.

오늘날 사회에서 게으름이 흔한 현상인 이유는 네 가지이다.

첫째, 기술의 진보.

둘째, 재료 부족에서 재료 과잉으로 양극 전환이 발생.

세 번째는 '게으른'체험 소비의 표현. 식사를 예로 들면 사람들은 식당 왕복, 차례 기다리기, 체력을 들여 얻게 되는 피로감, 남는 시간을 사용해 오락, 사교활동을 하는 유희함 등이 고려해야할 비용이다.

넷째, 세계화 과정은 노동 분업에서 비교 우위와 협력을 따른다. 인간 사회가 어느 정도 발전하고, 경제가 잘되는 지역에서 경제 효율성을 최적화하며, 비효율적인 것은 다른 개인이나 회사에 '외주'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접근법이다. '으러마 饿了么?'는 간단한 기숙사 음식 배달로 시작하여 점차 100 억 달러에 달하는 '유니콘'회사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게으름에 의해 생성된 '게으름 경제'는 사람의 퇴보와 같지 않으며, 사고 방식, 비즈니스모델, 라이프 스타일에까지 이르는 '도약'과 비슷하다.

시장 관점에서 볼 때, '게으름 경제'에는 네 가지 형태가 있다.

첫 번째는 무료함에서 나온 경제로, 많은 생산력이 조립 라인에서 해방되고 무료한 시간이 더 이상 소비되지 않으므로 WeChat 계정과 틱톡이 최고의 제품 형태가 되어 지루한 사용자에게 파편화된 콘텐츠를 제공한다. 지루한 경제는 시간 관리에서 '게으름 경제'다.

두 번째는 치킨 수프 경제이며, 인터넷은 유명인의 마음 여정이 수백만 가구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고 그들의 성공이 복제 가능함을 전달하고 있다. 그 뒤에는 성공에 대한 사람들의 염려와 지름길에 대한 갈망, 그리고 그에 수반되는 다양한 '지식 지불'이 이에 대한 인증이 된다. 닭고기 수프 경제는 자아성장의 '게으른 경제'다.

세 번째는 '붓다계'경제로,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사치품과 일용품의 종류가 눈을 어지럽히는 이때 '붓다계'와 '작은 신선함'은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최고의 선택이 된다. 자신을 설계하는데 시간들이기를 게을리하는 오늘날 사람들에게 '붓다계'경제는 문화 선택상의 게으른 경제이다.

위의 시장 현상에 기초하여, '게으른 경제'는 광범위한 전망을 가지고 있다.

2018 년 '쌍십일절'에서 22 개 교역 플랫폼의 판매량은 3,143 억 위안이었으며, 그 중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것은 청소로봇으로 2017 년에 비해 400 % 증가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신제품이 더 진일보하여 탄생할 것임을 알 수 있다.

노동을 통해 보수를 받던 농민공 그룹은 오늘날 다양한 스타트업의 '배달' 및 '뛰어다니는 일을 하는' 대군으로 전환되었으며, 중국의 3.6 억 배달 시장은 4 백만명의 배달원 고용 시장을 지원했다.

기업이 '게으름 경제'의 시대 맥락을 따라잡을 수 없다면 결국 시대에 의해 퇴출될 것이다.

7. 애완 동물 경제

경제 요소에서, 애완 동물 열기의 기본 논리는 소비력 증가다. 40 여 년 전에 사람들은 여전히 음식과 의복을 위해 달려 갔지만 오늘날 애완 동물 용품은 여러 주류 전자 상거래 플랫폼에서 크게 성장했다.

<2018 중국 애완 동물 산업 백서>는 2018 년 중국의 애완 동물 경제가 1708 억에 도달했음을 보여준다.

중국 농업 대학 수의과 대학의 한 연구에 따르면 1 인당 GDP 3,000 ~ 8,000 달러가 해당 국가의 애완 동물 시장이 급속 발전하는 시기라고 한다. 여기서 볼 수 있듯, 1 인당 연간 GDP 가 미화 8,000 달러를 넘어섰던 중국의 경우 시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윤 성장의 관점에서, 애완 동물 산업은 또한 전국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산업 중 하나다. 애완 동물 훈련, 몸단장 및 장례와 같은 전통적인 애완 동물 산업 외에도, 애완 동물 IP 화, 클라우드 육종 등 새로운 서비스 방식이 확장하고 산업이 세분화, 다원화되며 경제 이익을 촉진한다.

8. 유희 경제가 폭발전 밤

MobData Research Institute 가 발표한 <중고 전자 상거래 산업 연구 보고서 2018>에 따르면 2018 년 중국의 유희(편집자 주: 구매한 뒤 쓰지 않고 있는 중고품) 시장 규모는 7420 억 위안이며, 2020년에는 12539 억 위안을 초과하여 1 조 대 규모의 시장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썬엔위(闲鱼)에서 백만 명 이상의 사용자가 매일 2 백만 건 이상의 개인 유희 품목을 출시했으며 2018 년 교역액은 천억 위안을 초과했다.

Taobao 에서의 쇼핑과 비교할 때 트렌드를 따르는 젊은 사람들은 언제든지 유희 거래 앱을 탐색하는 것을 선호하며 물건이 좋으면서도 저렴한 '소확행'을 만날 기회를 갖는다. 또한 판매자는 유희 판매를 통해 '소득'을 얻을 수 있다. 2018 년 유희 어류 사용자의 1 인당 평균 소득은 4,000 위안을 초과했다.

몇 년 후 중국의 유희 경제는 같은 세 가지 이유로 분화될 것이다.

1) 이것은 '과거의 과잉'시대의 수요다. 중국이 '세계 공장'으로 생산을 누적하면서 과거의 생산 능력은 점차 광의의 '과잉 생산'으로 이동할 것이다. 유희 경제는 자원을 재할당하여 새로운 상품을 생산하고 새로운 수요를 자극하며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irbnb 는 많은 유희 숙박 시설 자원을 채굴함으로써 집주인에게 650 억 달러 이상의 수입을 올렸다.

2) 생태 환경에는 '순환의 길'이 필요하다. 미국인들은 현재 중국보다 4 배 많은 폐기물을 생산하고 있으며, 의류의 약 85 %가 매년 매립지로 보내진다. 그러나 중국은 인구가 많고 미국식 소비 경로는 통하지 않으므로 순환 경제 만이 생태 환경과의 모순을 조정할 수 있다.

3) 다시, 소비 관념은 정신과 품질로 업그레이드되어야 한다. 미국의 대량 소비비용은 중국은 감당할 수 없으며, 중국의 미래는 '제 3 의 길', 즉 총량증가의 전제 하에서 물질 소비 비율이 감소하고 정신 소비 비율이 증가하는 것이다. 물질에 대한 수요는 '극단적 선호'에서 '적합도'로 바뀌고, 마음 속의 자유와 행복에 더 관심이 있어야 한다.

유희 경제는 다음 영역에서 폭발할 것이다.

- 1) 중고 도서 시장과 확장된 독서 커뮤니티;
- 2) 빅 데이터 평가 및 시험에 근거한 중고 휴대 전화, 중고차;
- 3) 유희 경제는 공간과 시간과 같은 자원으로 확장될 것이다. 예를 들어, 농촌의 양로단지, 생태관광;
- 4) 변호사, 디자이너 등 전문 인재의 유희;
- 5) 정부 협조가 필요한 의료, 인력 등 유희자원;
- 6) 사치품 임대;

요컨대, 유희 경제의 발발은 과거 소비주의 시대에 대한 반성이다.

이상이 2020 년 중국 경제의 4 가지 트렌드와 8 가지 흥기할 새로운 경제다.

4. 양자컴퓨터 시리즈 28) 양자컴퓨터 방면에서 중국과학자의 새로운 성과

- 중앙왕 제공

양자 컴퓨터는 기존의 기존 컴퓨터와 비교할 때 컴퓨팅 속도를 기하 급수적으로 높일 수 있다. 최근 국제 학술 권위 저널인 'Physics Review Express(物理评论快报)'는 판지엔웨이(潘建伟)와 루차오양(陆朝阳)등과 같은 중국 과학자들의 과학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판지엔웨이(潘建伟)와 루차오양(陆朝阳)은 국제 학술 커뮤니티에서 '양자 컴퓨팅의 우수성을 실현하도록 하는 용수철 발판'이라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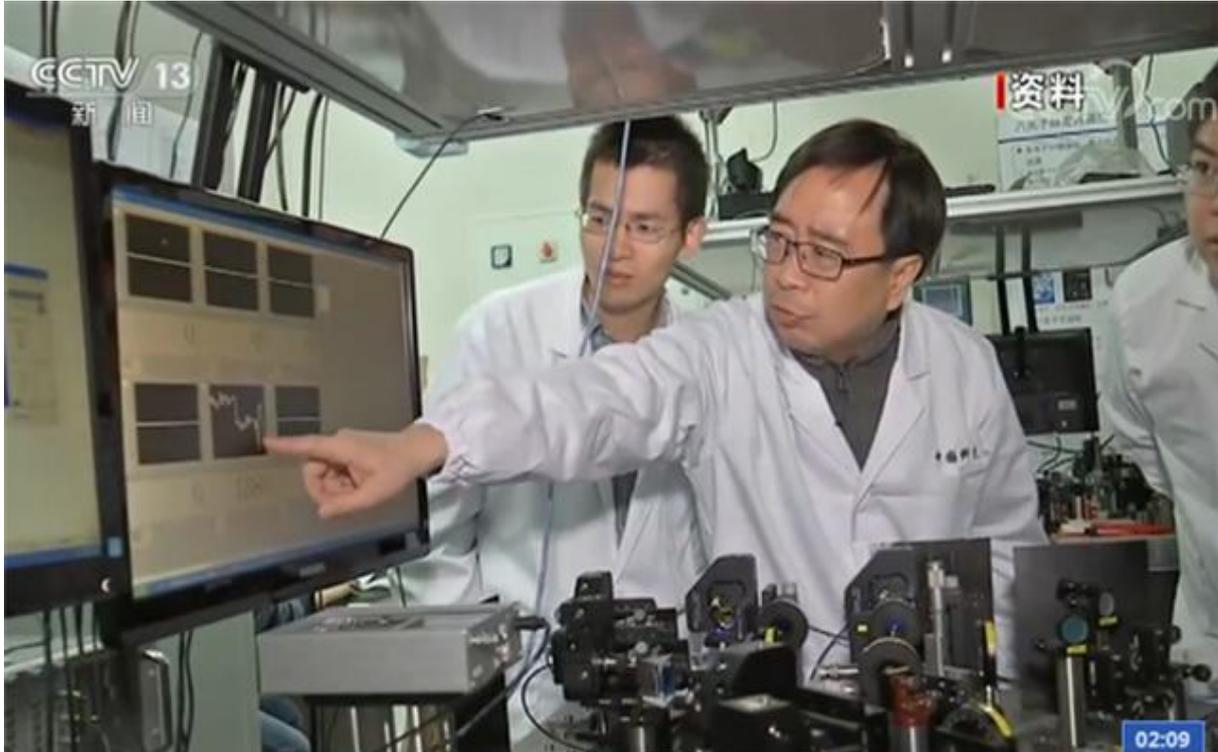


사진 1) 출처: 중앙왕

실험에 참여한 중국 과학 기술 대학의 루차오양교수는 현재 국제 양자 컴퓨팅 연구의 첫 번째 단계의 목표는 해외에서 '양자 헤게모니 (quantum hegemony)'라고 불리는 '양자 컴퓨팅 우월성'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과학 학술 용어로 양자 컴퓨터의 원형이 되는 것을 연구 제작하는 것을 뜻한다. '초전도 큐 비트를 사용하여 무작위 라인 샘플링 달성' 및 '광자를 사용하여 보스 샘플링을 실현'하는 것은 현재 양자 컴퓨팅의 우수성을 입증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인정된 두 가지 경로다.

연구팀에 따르면 이번 실험에서 중국 과학자들은 세계 최고 효율과 최고 품질의 단일 광자 자원, 최대 규모와 최고 투과율의 다중 채널 광학 간섭계를 사용하여 세계 최초로 20 광자를 입력 60 × 60 방식의 양자컴퓨터 간섭형 보스샘플링을 실현했다. 간섭 선의 Bose 샘플링 양자 계산은 출력 상태 공간 차원이 370 조 정도로 높으며, 복잡성은 48 큐 비트에 해당하며, 이는 최근 Google 에서 발표한 53 개의 초전도 큐 비트에 가깝다.

또한 옥스포드 대학, 비엔나 대학, MIT 와 같은 연구 기관의 유사한 결과와 비교하여 이 실험에서 성공적으로 조정한 단일 광자 수는 5 배, 모드 수는 5 배, 샘플링 속도는 60,000 배 증가했다. 공간차원지수는 백억배 높게 실현했고, 이러한 관건이 되는 지수상에서 이전 국제 기록을 대폭 능가했다.



ICO News Letter by PLAYCOIN

1.플레이코인 11 월~12 월 스왑 신청 건 처리일정 변경 공지(플레이코인, 2019.12.27)

안녕하십니까? 플레이코인입니다.

최근에 이더리움 네트워크 안정화 문제 때문에 PlayCoin QRC20 에서 ERC20 으로의 스왑 처리일정이 2020 년 1 월 9 일(목)로 지연되어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스왑 처리일정 변경]

변경 전: 2019 년 12 월 말

변경 후: 2020 년 1 월 9 일(목)

오래 기다린 유저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다국어 지원 가능한 swap@playcoin.game 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중국 알리바바, 안전하고 빠른 블록체인 위한 특허 획득 (블록체인투데이, 2019.12.22)

중국 인터넷 대기업 알리바바 그룹이 고유의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더 안전하고 빠르게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된 특허 두 개를 미국에서 획득했다. 그중 하나는 블록 데이터 인증 시간을 단축했으며 다른 하나는 참여자들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트랜잭션을 위한 인증 시간을 설정하도록 도모하도록 설계가 됐다.

두 특허 모두 이번 주 미국 특허청(USPTO)에서 승인을 받았다. 승인 발표가 있을 시기에 알리바바의 핀테크 계열사 앤트 파이낸셜이 중소기업에게 자금 지원을 목표로 하는 컨소시엄인 앤트 오픈 블록체인 얼라이언스의 출범을 발표했다.

특허 문서에 의하면 데이터가 노드에 추가될 때 새로운 기술은 블록 내 모든 데이터가 아닌 새롭게 추가된 데이터를 사용해 노드의 업데이트 인증 가치를 결정한다. 다른 특허는 트랜잭션의 인증 시간을 설정하기 위해 사용이 될 예정이다. 즉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참여자들은 물리적 시간 혹은 논리적 시간을 통해 특정 기간 동안에만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이다.

3.중국 정부, 암호화폐 채굴 기기 7,000 대 압수 (블록체인투데이, 2019.12.24)

중국 당국이 불법으로 전력 소비를 하고 있는 암호화폐 채굴 기기 7,000 대 정도를 압수했다고 지역 언론매체 CCTV 가 12 월 22 일 보도했다.

중국은 채굴 기기 압수를 하기 전 중국 허베이 성 동부 도시 탕산 도시의 70,000 가구와 상점 3,061 곳, 커뮤니티 1,470 곳, 공장 및 채굴장 그리고 변두리 지역 및 앞마당 등을 조사했다.

조사는 의심스러운 전력 사용을 알아내기 위해 탕산 경찰청과 중국 전력부서 및 다른 정부 부처 등의 협업을 통해 이루어졌다.

2018년 4월 처음 시작된 채굴 기기 단속 기간 동안 중국 당국은 ASIC 채굴장 6,890 곳과 고성능 변압기 52 군데를 조사했다. 경찰청에 의하면 암호화폐 채굴자들은 인근 지역으로부터 전력을 불법으로 끌어다 썼다고 한다.

또한 중국 경찰청은 비트코인(BTC) 채굴 기기가 매일 24 시간 동안 운영이 됐으며 일반 가정이 소비하는 전력량과 비교 시 40 배나 가까운 전력량을 소비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4.중국, 외환시장 개혁 추진하면서 암호화폐 정책 달라질 전망 (블록체인투데이, 2019.12.26)

중국 정부가 외환 시장 개혁을 추진하면서 비트코인(BTC) 등과 같은 암호화폐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정책이 변화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12월 24일 로이터는 중국 고위 관직자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새로운 연구 이니셔티브는 북경의 블록체인 해외 금융 시범운영 플랫폼의 확장을 동반할 것이라고 소식을 전했다.

2019년 3월에 출시된 연구 이니셔티브 플랫폼은 현재 19개의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외환 거래소 국가 행정부 부장 루 레이는 '중국 정부는 해외 금융 조달과 거시적 관리에 있어서 점진적으로 시범운영과 블록체인 기술 적용 시나리오의 범위를 확대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레이는 '중국 정부는 암호화폐 문제를 다루고 외환 거래소 규제의 구축을 연구하기 위해 외환 거래소 개혁에 대한 연구를 추진할 것이다'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5.시진핑의 中國 '블록체인 묻고 더블로 가!' (블록미디어, 2019.12.26)

2019년 블록체인 시장은 중국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한 해였다. 글로벌 통화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중국의 중앙은행발행전자화폐(CBDC)부터 시진핑의 블록체인 굴기 그리고 암호화폐 금지까지. 업계를 들쭉날쭉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진핑 '블록체인이여 굴기하라'

2019년 10월,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공식 자리에서 '블록체인'에 대한 발언을 쏟아냈다. 시 주석은 공산당 중앙정치국 총회에서 '블록체인을 핵심 기술의 독자적 발전을 위한 주요 돌파구로 삼아,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투자를 늘리며 핵심 기술에 더욱 집중해 블록체인 산업의 혁신을 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블록체인을 주요 기술로 삼아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업계는 시 주석의 발언을 통해 중국이 향후 블록체인 산업을 이끌어 갈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국가 원수의 힘이 절대적인 중국이기에 시 주석의 발언이 큰 영향을 발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당시 시 주석의 발언은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을 주문한 것이었지만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탄생한 비트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 시 주석의 비트코인 굴기 소식이 알려지면서 비트코인은 하루 40% 이상 급등했다.

시진핑 '암호화폐는 여전히 NO'

시진핑의 블록체인 굴기 발언으로 비트코인이 급등하는 등 이상현상을 보이자 중국 정부는 곧바로 진화에 나섰다. 시 주석의 발언이 블록체인을 육성하는 것은 맞지만 암호화폐에 해당하는 발언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중국 기관지 인민일보는 칼럼을 통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분리하고 투기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민일보는 주로 정치성을 띤 중요기사들과 정부 인사들의 연설, 정치적 해설 등이 실리는 신문으로, 중국 공산당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민일보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태생은 같지만 블록체인이 투기는 아니다'면서 '투기행위는 철저히 막고 암호화폐를 통한 불법거래, 자금세탁 등의 행위는 엄격히 통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중국에서는 중국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제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중국정부의 통제로 인해 대부분 중국 거래소의 상장이 막혔고 거래소들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있다는 것이다. 비슷한 시기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의 상하이 사무실에 경찰이 급습했고, 이로 인해 사무실이 폐쇄됐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후 바이낸스의 창평자오 CEO 는 즉각 트위터를 통해 '이는 사실 무근이며, 상하이에는 사무실도 없다'고 해명했지만 보도를 전한 매체가 '증거가 있다'면서 '추가 보도를 할 것'이라고 밝혀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중국의 디지털 화폐 DCEP

2019 년 6 월, 페이스북이 글로벌 암호화폐 결제 플랫폼 리브라를 발표했다. 그리고 약 2 달 뒤 중국은 CBDC 발행을 언급했다. 그리고 중국은 CBDC 의 명칭을 DCEP(Digital Currency & Electronic Payment)라 부르며 독자적인 발행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중국이 DCEP 발행을 언급한 이후 빠른 속도로 관련 논의가 진행됐다. 황치판 중국국제교류센터 부이사장은 '중국은 세계 최초로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는 중앙은행이 될 것'이라고 공언하며 DCEP 발행을 공식화했다.

중국의 이 같은 행보에는 글로벌 화폐 패권을 위안화로 가져오겠다는 야심이 숨겨져 있다. 현재 미국의 달러가 글로벌 기축통화가 된 것처럼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를 '글로벌 가상 기축통화'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의도다.

DCEP 시범 운영을 위한 지역도 물색 중이다. 현재 선전과 쑤저우가 유력하다. 선전의 경우 디지털 경제 혁신 시범도시로 지목된 곳으로, DCEP 를 활용하면 다른 산업군과의 시너지 효과를 노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구체적인 시기는 알려지지 않았다.

6.中 블록체인 50 지수 등장 이어 ETF 도 그린라이트? (조인디, 2019.12.27)

12 월 24 일 중국 선전증권거래소가 블록체인 50 지수를 발표한 후 펀드운용사 평화펀드가 이 지수를 근거로 한 '선전증권거래소 블록체인 50 ETF(상장지수펀드)'를 신청했다. 금융 당국의 승인을 거치면 중국 최초의 블록체인 ETF 가 탄생하게 된다. 지난 10 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블록체인을 자주 기술혁신의 돌파구로 삼겠다고 선언한 뒤, 인터넷 · 물류 · 공급망 · 공공서비스 등 산업 각계에서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금융 분야에서는 당국의 주도 하에 대규모 자금을 블록체인 산업에 유입하려는 시도가 나온다.

中 블록체인 지수 발표 이어 ETF 신청 접수

24 일 선전증권거래소가 발표한 블록체인 50 지수는 블록체인 하드웨어 설비 제조나 기술 · 서비스 등 블록체인 관련 업무를 하는 상장사 중 톱 50 을 선정해 발표. 같은 날 지수에 편입된 상장사 공개돼. 여기에는 중국 최대 보험사 핑안그룹 계열의 핑안은행, 제조사 메이더그룹, 유통기업 쑤닝이거우, 중국 ATM(현금자동입출금기) 점유율 1 위 국유기업인 광전운통 등 우수 기업이 대거 포함. 이 지수는 반년 간

기업 시총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매년 6 월과 12 월 조정. 기준시점은 2012 년 12 월 31 일, 기준점은 1000 포인트.

당일 선전에 본사를 둔 펀드운용사 평화펀드(PENGHUA FUND)가 블록체인 50 지수를 바탕으로 둔 '선전증권거래소 블록체인 50 ETF'를 신청했다고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중국증감회)가 발표. 펀드 중에서 명칭에 '블록체인'이란 단어가 들어간 건 이번이 처음. 만약 중국증감회가 신청을 받아들이면 중국에 첫 블록체인 ETF가 등장하게 돼.

거대 자본이 블록체인에 들어온다

업계 전문가들은 블록체인 시장이 아직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가파른 성장을 할 것이라고 전망. 26 일 중국 유력 매체 상하이증권보는 '블록체인 ETF는 올해 주목을 받은 5세대(5G) 이동통신 분야의 ETF보다 결코 뒤쳐지지 않을 것'이라고 낙관. 자본이 대거 유입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와. 한 업계 관계자는 상하이증권보와 인터뷰에서 '블록체인 50 지수가 물꼬를 터준 덕에 향후 더 많은 블록체인 관련 지수와 테마 펀드 상품이 출시될 것'이라며 '블록체인 산업에서 자본의 진입로가 넓어졌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

내년 성장 가속화... 블록체인 '+' 이어 'x'도

중국 금융 정보 플랫폼 초이스에 따르면 다수 기관들은 내년 블록체인 시장의 성장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내다봐. 올해 4321 개 기관이 97 개 블록체인 상장사의 연구조사에 참여. 이중 쉐닝이거우 · 광전운통 등 8 개 상장사는 100 개 넘는 기관에서 주목을 받고 있어.

이들이 기대를 거는 이유는 블록체인 기술 특성상 광범위한 업계에서 응용이 가능하기 때문. 중국 펀드운용사 에버브라이트 프라메리카(verbright Pramerica)의 동웨이웨이 펀드매니저는 '내년 블록체인 기술은 공급망금융 · 저작권보호 · 법적증거 · 에너지거래 영역에서 우선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 서비스 업체가 주목을 받을 것'이라고 관측. 이는 앞서 중국 정부가 강조한 '블록체인 플러스(+)'와도 일맥상통한 부분.

이 외에 '블록체인 엑스(x)' 영역에서도 활발한 움직임이 보일 것이라는 전망도 있어. 블록체인 전문가 홍수는 '블록체인 x, 즉 기존 산업뿐 아니라 탈중앙화 금융(DiFi)이나 탈중앙화 미디어 등 블록체인이 자체적으로 만들어내는 신산업 분야도 두각을 드러낼 것'이라고 내다봐.

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디자인 (108)

본 자료는 아시아디자인연구원(ADI) 원장이며, 상하이교통대학 디자인 학원 산업디자인학과 윤희건 교수의 글입니다. 본 자료 관련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윤희건 교수(yoon_bam@126.com)께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디자인은 현신이고 도전이다

존경하는 상하이시 정부 위생과 관계자님께

저는 한국인으로 중국 상하이교통대학 디자인 학원 공업 디자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윤희건입니다. 저는 공업 디자인을 대상으로 연구 교육, 실제적으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 중국, 한국 일본 이 삼국의 민중들이 사용하고 있는 각종 제품 디자인에 많은 흥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9 년 7 월 초 시작한 쓰레기 분리는 시민 의식이 특출한 상하이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로 인하여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도 교실에서 나는 각종 쓰레기를 분리하여 버리고 있는 모습이 밝은 중국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거리도 꾸준히 도로블록과 가로수 주변 바닥을 새롭게 정비하여 한결 깨끗하여져서 아침 저녁의 출퇴근 길이 상쾌합니다.

날로 새롭게 변하는 상하이 거리는 단순한 거리가 아니라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매력적 공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자 여러분의 진심 어린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깨끗한 거리를 유지하는데 있어 청부를 하시는 미화원의 공로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출근을 하면서 그들의 청소하는 모습을 유심히 관찰을 하였습니다. 대다수 분은 남녀이며, 나이대는 30 대 이상인 것 같습니다. 미화원 분 중 많은 분들은 리어카를 항상 끌고 다니는데, 리어카 디자인이 조금 변경되면 매우 편하여 그 분들의 노고를 줄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제안을 합니다.



현재 상하이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용 리어카 손잡이가 양면에서 각각 나와 있다.

현재 상하이에 있는 리어카의 손잡이는 두 개의 봉이 리어카 양면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화원 분들이 이것을 잡을 때는 항상 봉을 끝 혹은 봉대를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밀고 댕기 때 그 봉의 끝을 잡아야 하니 힘이 한쪽 방향으로 쏠리게 되어 약간 돌아가게 됩니다. 가운데 봉이 있으면 마음대로 잡을 수 있어 편리하고, 힘이 분산되어 쉽게 밀 때 댕기 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방식으로는 제한적으로

잡아야 하고, 힘도 더 들어갑니다. 특히 쓰레기로 가득 차, 무게가 있을 때는 손과 팔의 힘으로 잡아당겨야 하기에 더욱 많은 힘을 줘야 합니다.



상하이 공사장에서 발견한 것으로 리어카로 손잡이 가운데 봉으로 연결하여 막았다.

위의 사진은 상하이 공사장에서 발견한 리어카인데, 중국에 있는 일반적 리어카 손잡이에 가로로다른 봉으로 연결하여 막았습니다. 잡을 때 선택이 폭이 넓고, 배로 밀수가 있어 힘을 적게 줄수 있으며 편합니다. 아마 공사 현장에서 사용자가 많은 시행착오 중 깨닫고, 스스로 다른 봉을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의 상하이 시 정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리어카에서 손잡이의 가운데는 봉이 없기에 얻는 편리성도 있지만, 미화원들에게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연유로 손잡이를 바꾸면 기존의 힘보다 약 30%정도는 힘을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종일 밖에서 일을 하는 그들의 수고에 현 리어카 디자인의 변화로 그들의 힘을 절약할 수 있다면 그들의 복지도 좋아지고 그들의 자발적인 헌신으로 더 좋은 도로 환경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쓰레기를 다른 차량으로 옮겨담기 위하여 작업을 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

현재 한국 서울은 아래와 사진과 같은 도로 청소용 리어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리어카는 손잡이가 가운데가 막힌 형입니다.



현 한국 서울 노원구에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 리어카

중국 상하이에서 사용할 리어카는 상하이 지역과 특성을 고려하면 얼마든지 좋은 디자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거리에서 봉사하시는 이런 분들을 위하여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디자인은 거창하게 하는 것 보다 그 지역의 특성과 사용자를 고려하여 주어진 예산안에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상하이 시 정부 관계자분들이 저의 제안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상하이 교통대학 디자인 학원 공업 디자인 학과 윤희건 교수

일본 전문가 시각으로 본 중국

1. 왜 중국 디지털통화가 무서운가, 2020 년 올림픽 결재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 (Coindesk Japan, 2019.12.24)



사진 1) 출처: Coindesk Japan, 왜 중국디지털통화가 무서운가, 2020 년 올림픽해에 결제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리브라』저자 · 오까다히토시

2019 년 블록 체인 및 암호 자산에 관심 있는 비즈니스 퍼슨 경영자, 투자자에게 가장 큰 화제 중 하나였던 것이 페이스북의 디지털 통화 '리브라'일 것이다. 구상이 발표된 후, 선진국 정부·중앙은행으로부터의 예상 이상의 반대로 예정은 연기되고 있지만, '리브라 가능성, 위협, 신인 信認'(일본경제신문출판사)을 상재한 오카다 히토시·국립정보학연구소 준교수는 '리브라 구상을 발단으로 일어난 논의나 재인식된 블록체인의 가능성에 눈을 돌릴 때'라고 지적한다. 오카다 씨에게 리브라 구상이 가져온 영향, CBDC와 블록 체인의 전망에 대해서 물었다(취재는 11 월 하순에 행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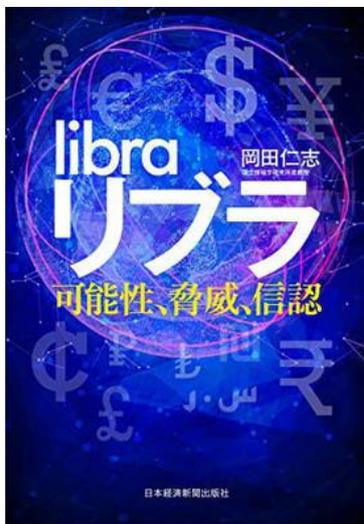


사진 2) 출처: Coindesk Japan, 『리브라 가능성, 위협, 신인』(저 · 오까다아쓰시, 일본경제신문출판사, Kindle 판 1,782 엔, 지판 2,750 엔, 기사공개시점)

리브라 구상의 의의,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세계 규모의 디지털 통화
— 서적을 출판된 10 월 이후 리브라 프로젝트에는 어려운 환경입니다.

본서의 목적은, 리브라라고 하는 현상에 대해서 나라나 금융 대기업등의 세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쓰는 데 있었습니다.

사실 10 월 2,3 일 블록 체인 콘퍼런스 'b.tokyo'에 칼리브라의 캐서린 포터 씨가 온다는 것으로, 등단 내용을 확인하고 책을 낼 예정이었습니다. 그녀의 말에서, 어려움이나 장애가 있어도 리브라는 진행된다는 당사자의 긍정적인 자세를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출판도 할 수 있었습니다(웃음).

리브라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이것을 발단으로 일어난 반응이나 논의에야말로 의미가 있다. 책은 그 논점표로서 적당하다고 자부하고 있고, 실제 그런 자리메김으로 읽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리브라 구상에서 확산된 논의나 반응에서 흥미로운 것은 어떤 부분일까요?

리브라는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디지털화폐 구상입니다. 이 탄생을 계기로, 블록체인을 사용하지 않으면 실현이 어려울 것 같은 세계 규모의 통화가 등장할 가능성'이 생겨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리브라가 최종적으로 블록체인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도 퍼블릭 블록체인의 강점이 재인식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니다. 관리자가 한 사람 한 나라와 조직이 없는데도 세계에서 어느 정도의 신뢰를 받는 통화를 유통시키기 위해서는 퍼블릭성 있는 블록 체인이 아니면 어렵습니다.

-리브라는 연기를 해야 하는 등 순탄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페이스북조차 실현이 어렵다면 도대체 누가 그 정도의 구상을 실현할 수 있을까요?

페이스북에서 어렵게 되면, 다른 IT기업에서는 어려울 것입니다. 실제로 GAFA의 다른 3개 금융 서비스는 모두 비자나 마스타 등의 네트워크에 로밍 할 뿐, UI 을 준비하고 낡은 타입의 카드가 아니라고 보이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백엔드는 완전히 올라탈 있을 뿐 기존 질서에는 도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리브라만은 달러, 유로화와는 별개로 새로운 통화단위를 만들려고 합니다. 비자-마스타카드의 네트워크에도 의존하지 않고, 통화 발행 주체와 결제 수단 제공자 모두를 적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만한 일은 페이스북이기 때문에 할 수 있었습니다.

- 왜 페이스북은 가능했을까요? 그렇게까지 했어야 했던 이유는?

SNS 라는 서비스의 성질상 계속 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니면 젊은 세대는 반드시 새롭게 태어나는 서비스를 사용하게 된다. 여유가 있을 때 움직이지 않으면 과거에 있었던 SNS 처럼 사용되지 않게 되어간다.

거기서 통화를 잡아두면, 타사 게임에서 통화가 사용되어 살아남는다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페이스북은 인스타그램이나 WhatsApp 등을 매수했지만, SNS 가 SNS 를 사도, 유저가 나이가 들면 같은 것입니다.

영국과 중국이 맞붙으면 겁이 난다.

--페이스북, 리브라 외에 블록체인을 이용한 프로젝트에 열심인 곳, 주목하는 바 있나요?

나라로 말하자면 적극적인 것은 영국입니다. 유니버시티.컬리지.런던(UCL)에는 블록체인 기술 센터가 있고, 수구파 케임브리지에도 옥스퍼드에도 블록체인 연구자가 있습니다.

영연방에는 미국 미달러의 패권에 대항하고 싶다는 의도가 있지 않은가. 지금이야말로 통화 패권은 달러가 쥐고 있지만, 역사로 보면 짧은 일이고, 원래 금융의 수도는 런던이며, 통화 패권은 파운드가 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통화의 수도는 런던이라는 존재가 되고 싶은 것이겠지요. 영연방이 뭉치면 그저 그런 불륜은 되지만 그래도 달러에는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주시해야 할 것은 '영국이 누구와 손을 잡느냐'입니다.

--어디랑 손을 잡을 걸로 생각하세요?

가능성 있는 것은,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중국이라고 생각합니다.

2018 년 한중일의 경제 국장 모임이 베이징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그 때 촬영된 3 명의 국장이 악수하고 있는 사진이 있는데 거기에 UCL 블록 체인 기술 센터장이 나온다. 마침 일본에서 블록체인에 관한 국제 모임이 마루노우치 핀텍센터에서 열렸을 때의 일입니다. 여기에 참가할 줄 알았던 영국을 대표하는 인물이 오지 않았다. 왜냐하면 북경에서 그 회합에 나갔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아시아에서 파트너를 찾고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봅니다. 단지 영국은 일중간 중에서는, 일본보다 중국, 한국에 더 접근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중국과 영국이 손을 잡는다는 것이 이미지 하기 힘들는데요...

확고하게 넷이서 손을 잡는다고 보다는, 완만한 연계·협조가 될 것입니다. 독일이 차를 팔기 위해 완만하게 중국에 접근한 듯한 이미지입니다.

예를 들어 국제통화발행하자는 무브먼트를 동시에 일으켜서, 기축통화는 달러만이 아니다라는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다만 통화 자체의 테리토리는 각각 나눕니다. 제갈 공명의 천하 삼분의 계가 상기되지만, 미중영의 삼극이 되면 일대일로는 이기지 못하더라도 자기 몫은 늘릴 수 있습니다.

--의문으로 생기는 것이 유로입니다. EU는 어떻게 마주 볼까요?

ECB(유럽중앙은행)의 생각을 아직도 모르겠어요. 드라기 전 총재가 리브라에 대해 민간의 움직임 등 하찮다는 견해를 표명했다고 생각하면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존재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라가르드 신임 총재는 IMF 전무 이사였던 지난해(2018년)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발행에 관심을 보인 적이 있는데 그때는 리브라는 없었습니다.

유로 정도의 것을 쉽게 만들지 못할 것이라는 속셈이겠지만, 그렇다고는 해도 통화단위가 하나 생기면, 유로나 ECB의 존재의의도 줄어들기 때문에 위기감은 있을 것입니다.

유럽의 대책으로는 2 가지 생각됩니다. 우선 전혀 상대하지 않는 방법. 디지털 통화를 발행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입니다. 결제의 전자화는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통화라는 형태로 일부러 상대방 수에 넘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사진 3) 출처: Coindesk Japan, 오까다아쯔시 씨 (촬영 : 하마다 스구루)

또 하나는, 지금 안에 ECB 로서 디지털 통화를 발행하는 방법. 비록 ECB 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각국의, 프랑스나 독일의 중앙은행이 마음대로 발행해 버릴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유로가 무너질지도 모르지만, 그 혼란스러움으로 각국 통화를 부활시키는 움직임이 생기게 됩니다. 미국은 디지털 통화에 의욕이 없는 내색이지만, 만약 당한다면 EU, 유로는 한 줌도 안 남습니다.

‘엔화는 불필요?’ 일본에서의 쇼핑에 디지털 위안화가 사용된다.

-논의들이 모두 해외 이야기인데, 일본은 뒤쳐질까요?

일본에서 문제인 것은 통화의 방어를 누가 담당할지 확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상화폐 이용자 보호라면 금융청에서 할 것이고, 엔이라는 통화의 가치를 지키는 것은 일본은행. 글로벌한 디지털 통화가 등장해 마음대로 사용되게 되면 통화가치가 침식되는 움직임으로부터 누가 일본을 지킬 것인가요?

중국은 적극적으로 국가적으로 위안화를 글로벌한 통화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리페이, 위챗페이도 있어서 국내는 통제할 수 있고 만약 가상화폐로서의 디지털 위안화가 등장한다면 국외에서도 점차 퍼져나갈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도 노드를 세우는 사람은 나오겠죠. 코인 주소가 있으면 가맹점을 만들지 않아도 송금이 가능하겠네요. 비트코인 가맹점이 되는데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되어도, 일본에 지사가 있는 회사가 일본에서 결제를 대행하고, 엔에서 위안화로 변환해서 중국으로 송금한다면 일본 엔화는 개재되어 있는 것입니다만, 처음부터 가상화폐인 디지털 위안화가 위안화라고 하면... 가격도 위안화로 표시되어 있어, 일본인들이 일본에서 쇼핑하는데 사용하는 통화가 위안뿐이고 엔은 필요 없다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알리페이, 위챗페이의 모바일판은 일본에서는 아직 이용할 수 없지만, 약관을 읽으면 관할 법원이 광둥성 선전시로 되어 있고, 자산은 중국의 런민은행의 규제에 의해 보호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찌된 일이라면, 인터넷 세계에서는 분쟁시 관할 법원이 미국·캘리포니아나 룩셈부르크, 아일랜드로 지정되어 있는 서비스가 많이 있지요. 아일랜드는 그것을 비즈니스로조차 하고 있는 것인데, 그와 같은 일을 중국이 금융으로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있어서 미국과 같은 존재로 중국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이 과거의 미국과 같은 입장이 되어간다면.

중국은 미국을 잘 연구하고 있는데요. 대등한 입장에 설 수 있도록 미국이 어떻게 세계를 잘 컨트롤하고 있는지 잘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FinCEN(금융범죄 수사망, Financel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이 전세계의 돈세탁을 수사하고 있지요. 미국은 머니 분야에서도 세계의 경찰로서 미국에 조금이라도 관련된 거래는 자신들이 수사하겠다는 자세입니다.

--일본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것과 같은 말을 중국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행할 디지털 통화가 관련된 거래는 모두 중국이 중국 인민은행이 관여한다는 자세입니다.

사실 입법부에서 일본의 성장 전략을 쓰고 있는 팀 중에는 강한 위기감을 가지고 있는 인물도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참고가 된다면 아시아 국가들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만의 포지셔닝을 보면 동아시아의 균형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알 수 있다.

서의 에스토니아, 동의 대만

대만은 대륙(중국)과 같은 일을 하면, 고객은 쉽게 구할 수 있지만, 그 정도로는 독자적인 존재감을 나타낼 수 없게 되어 버립니다. 대만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중국·대륙과는 차별화하고, 일본에서는 유행한 것을 도입한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또한 LINE Pay가 유행하고 있는 것도 그러한 배경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알리페이, 위챗페이는 신용 스코어가 함께 되어 있으므로, 이것은 이제 통치 기구 그 자체. 대만이 그것에 올라타 버리면, 상대방에게 목을 붙잡힌 것과 마찬가지. 양안관계를 양호하게 유지하면서, 자신들이 잘하는 기술면에서는 가능한 한 독자적인 것을 사용한다고 하는 자세입니다.

이것은 가설이지만 대만은 블록체인의 퍼블릭성을 사용하여 살아남으려 하는 나라로 에스토니아에 가까운 입장일지도 모릅니다. 서쪽의 에스토니아, 동쪽의 대만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나라의 형태입니다. 이러한 나라들의 균형감각이라는 것은 일본에 있어서도 좋은 영향을 가져올지도 모른다.

아시아의 블록체인 입국을 목표로 하는 나라들과, 일본은 손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게다가, 그 속에서 리더적인 존재이고 싶은거죠. 대만뿐만 아니라 일본과 잘 지낼만한 동남아 국가도 찾고 싶은 곳이네요. 예를 들어 태국. 지금 일본여행 프로그램이 유행하고 있고, 일본 여행이 늘고 있습니다. 태국에서도 한국 드라마나 케이팝이 유행했는데, 다시 일본에도 팬이 돌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사람들에게서 신인을 얻을 수 있을지 어떨지.

이들 나라들은 여러 나라와 균형 있게 사귀고 있지만 돈과 같은 누군가를 신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면에서는 일본에 맡겨 달라고 할 수 있을지 어떨지.

예를 들어 슬라미츠는, 캄보디아와 손을 잡고, 신속하고 무료 결제·송금을 실현하는 토큰형의 국립은행 디지털 결제 '바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중앙은행의 책임자인 치아·세레이 총괄부장(Her Excelency CHEA Serey)은 영국이나 호주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분으로, 일본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 입장에 있는 분이 일본 기업에 신뢰를 두셨다하는데 좋은 모델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일본과 손을 잡지 않아도, 기술이나 신뢰가 필요한 곳에서는 일본과 손을 잡고 일본식 블록체인을 사용해 주는 나라가 몇 개 있으면 결과적으로 일본 통화도 지킬 수 있지 않을까요?



사진 4) 출처: Coindesk Japan, 촬영 : 하마다 스구루

2020 년 올림픽해 전망

— — 2020 년은 어떤 해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리브라에 대해서는 모두 말했듯이 우선 페이스북, 그리고 리브라 재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주시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2020 년이라고 하면 올림픽 해이지만 올림픽은 엑스포 이상의 '결제의 전시장'입니다. 애틀랜타 올림픽 때는 VISA 나 코카-콜라가 새로운 지불방법의 실험·시연을 했습니다. 이런 종류의 기존 대형 결제업자·플레이어들은 모든 기술을 조기에 매수해서 소금에 자주 절여 버리지요. 단지 유일하게, 올림픽에서 시연하고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제시해줍니다.

그래서, 미국을 흥내내려고 중국이 올림픽에 맞춰 글로벌 통화 만들고, 알리바바나 텐센트가 시연을 해 보였더니 재미있는 일이 됩니다. 중국에서는 알리바바나 텐센트, 일본에서는 소프트뱅크·Z 홀딩스라는 방법으로 하면 분위기가 만들어 질 겁니다.

어쨌든 종이나 코인이라는 돈의 형태는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올림픽까지는 리브라는 시간이 맞지 않았지만, 2020 년 리브라의 장래와 함께 올림픽에서 제시될지 모르는 새 돈의 방식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2.중국의 불량채권문제, 금융위기를 회피할 수 있을까-일본의 버블기를 상기

(Nippon, 2019.12.24)

미국과의 무역 마찰등이 영향을 받아, 중국 경제는 감속 경향에 있다. 발밑에서는 경기대책이 성공하고 바닥이 올라간 듯 보이지만 잊지 말아야 할 큰 문제가 있다. 최근 몇 년간 계속 지적되어 온 기업의 과잉채무, 즉 부실채권 문제가 심각 일로를 걷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에서 금융위기가 일어나는 사태가 되면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을 가져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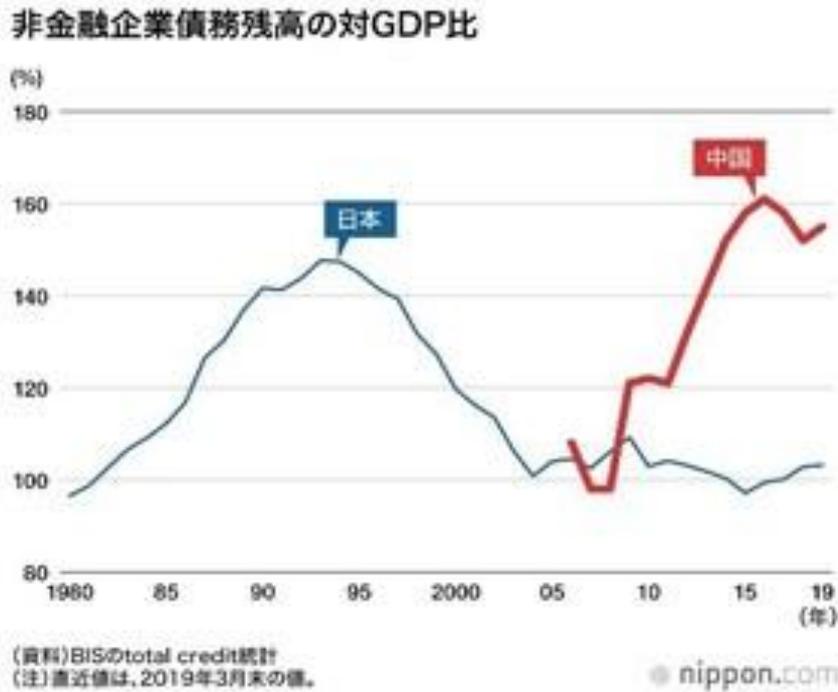


표 1) 출처: Nippon, 비금융기업채무잔고의 대 GDP 비

일본버블기에 유사

중국은 무역마찰 심화로 대미 수출이 감소한데다 향후 불확실성의 고조로 민간 고정자산 투자가 슬로다운 됐다. 단지, 발밑에서는 중국 정부의 경기대책이 버팀목이 되어, 경제는 표면적으로는 올라오고 있다. 정책 금리 인하, 2 조 위안(약 31 조엔)규모의 기업 감세와 사회 보장비 부담의 경감, 지방채 발행 확대에 의한 인프라 투자 촉진, 하이테크 제조업용 보조금, 차세대 통신 규격인 5G 의 조기 상용화 등의 정책이 성공했다고 본다.

또, 세계적인 IT 수요에 회복의 조짐이 보이는 것 외에 각국 정부도 경기대책을 내걸고 있다. 이러한 결과, 제조업의 신규 수주가 재확대되는 등 경기회복 움직임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그러나 수면 아래에 있는 구조문제를 간과해선 안 된다. 소득격차와 환경오염도 큰 문제지만, 필자는 과잉채무·부실채권 문제에 가장 주목하고 있다. 이 10 년간 중국에선 기업 부문을 중심으로 채무가 급증했다. 국제 결제 은행(BIS)에 따르면 중국의 기업 채무 잔액은 2008 년 말 31 조 위안(약 480 조엔)에서 18 년 말 136 조 위안(약 2100 조원)에 4 배 초과에 커졌다. 기업 채무 잔액의 국내 총생산(GDP)대비는 98%에서 152%까지 상승하고 그 채무 급팽창의 양상은 거품기의 일본과 유사하다.

136 조원 중 3 할은 지방 정부가 인프라 투자와 부동산 개발 투자를 하기 위해 자금 조달하는 '대출 평태(LGFV)'로 불리는 특별 목적 회사(SPC)의 빚이다. 중국의 금융 기관의 대출 평균 금리는 현 시점에서 연 5.7%. 단순 계산하면 기업의 이자 지급 부담은 연간 7 조 7520 억위안(121 조엔)GDP 의 8.6%이다. 과잉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시장으로부터 퇴출을 강요당하지 않고 살아가며 살고 있는 '좀비기업'은 늘고 있어 빚을 갚기 위해 빚을 지는 상황이 언제까지 가질지 조마조마하다.

불량채권비율은 공식통계의 5 배

이러한 상황하, 중국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할 위험은 불식할 수 없다. 기업 채무 급증의 이면에는 여신의 급확대가 있다. 중국에서는 은행 대출 잔액의 대 GDP 대비는 5 년에서 30%포인트 상승했다. 국제 통화 기금(IMF)조사에 따르면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과거 5 년간 총 여신의 GDP 대비 30%포인트 이상 상승한 나라는 총 42 개국. 그 중 18 개국이 5 년 이내에 금융 위기를 동반하는 하드랜딩에 빠졌다고 한다. 즉 중국과 동등한 여신 팽창이 나타난 나라들 중 4 할강이 금융 위기에 처한 것이 된다.

중국의 금융 시스템이 안고 있는 리스크를 확인하기 위해 불량 채권의 실태를 파악하고 싶다. 중국 정부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전국 상업 은행의 부실 채권 비율은 2011 년 말 1.0%에서 19 년 9 말에는 1.9%로 상승하는 데 그쳤다. 중국 정부는 일정한 리스크는 있지만, 은행에는 손실을 흡수하는 능력이 있다고 설명한다.

하기야, 금융기관이 반드시 경영상황을 정확하게 공개하고 있지는 않으며, 실제 부실채권비율은 훨씬 높다. 필자가 상장 기업 2300 여개 사의 15 년 재무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계한 결과, 잠재 부실 채권 비율은 공식 통계의 5 배에 이르렀다. 이를 바탕으로 단순 계산하면 지금의 잠재 부실 채권 비율은 10%가까이 된다. 통계의 범위가 다르므로 단순 비교에는 문제가 있지만 이는 일본의 주요 은행의 부실 채권 비율의 피크인 8.4%(02 년 3 월)보다 높다. 이 때문에, 향후 몇 년간 중소기업의 파탄이 발생하고, 은행간의 상호 불신으로 이어지며, 나아가서는 중국발 금융 위기에 이른다는 리스크 시나리오를 머리 한구석에 놓아두어야 한다.

기업 채무와 부실이 누적된 요인으로서 중국 정부가 08 년 리먼 쇼크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4 조 위안 경기 대책과 대규모 금융 완화가 꼽힌다. 여기에 더해 많은 기업과 금융기관이 정부의 '암묵적인 정부 보증' 혹은 명시적인 채무 보증을 전제로, 위험을 경시한 경영 판단을 계속해 온 것도 크다. 정부가 국유기업이나 은행을 경영파탄으로부터 지키고 있기 때문에 국유기업은 변제능력을 웃도는 규모의 채무를 지게 되고, 국유은행도 대출처 기업과 자행의 경영에 대한 체크가 느슨해진다.

국유기업이 조달한 자금의 대부분은 효율성이나 채산성이 낮은 인프라 건설이나 부동산 개발 투자에 투자되었다. 또, 철강이나 시멘트, 태양광 패널등의 제조업 섹터도 설비 과잉에 빠졌다. 게다가 기업이 재테크에 주력했기 때문에, 그 밸런스 시트는 비슷한 형태가 되었다. 중국에서는 자금이 실물투자로 돌아가지 않고 리스크가 높은 금융자산투자에 투자되는 것을 '탈실향허 脱実向虚'라고 부른다. 중국에서도 부동산시장과 주식시장에서 투기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정부의 통제 아래 없이 수익률이 높은 은행 이재상품 등 새도우뱅킹 상품에 가장 인기가 높았다.

금융위기는 회피할 수 있을까

과잉채무·부실채권 문제가 중국발 금융위기로 이어지면, 그 영향은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이 되어 순식간에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에서는 1997,98 년 불량채권문제가 금융 위기를 불렀다. 금융기관은 연쇄적으로 경영악화가 진행되면서 정부가 호송선단 방식으로 금융기관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주채권은행제 하에서 금융기관이 연결이 깊은 기업을 계속 보호하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았다. 이들 결과 96 년에 5.1%까지 떨어졌던 경제 성장률은 97 년에 1.6%로 급격히 떨어지고 98 년에는 ▲ 2.5%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중국이 일본의 전철을 밟으면 가장 먼저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이 반응할 것이다. 일본 주식은 급락하고 엔고도 될 것이다. 물론 실물경제에도 큰 영향이 나온다. 일본제의 자동차나 가전, 산업기계등이 중국에서 팔리지 않게 되는 것 외에 방일 중국인수도 큰폭으로 감소.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제조업에서 서비스업까지 폭넓은 업종으로 일본 기업에 악영향이 나타날 것이다.

지금까지 중국 정부는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싹을 미리 잘라왔다. 2019 년 5 월 중국 인민 은행은 21 년 만에 상업 은행 '包商银行'을 공적 관리 하에 두면서 은행 간의 상호 불신은 심화되지 않았다. 그러나 IMF 가 11 월 발표한 대중 4 조협의 보고서도 지적하는 것처럼 包商银行에 유사하고 경영 파탄에 빠질 수 있는 은행은 그 밖에도 많다. 최근에도 여러 중소은행의 은행 인수어음이 거래처로부터 수령을 거부당하고 은행의 인출소동도 곳곳에서 발견된다.

과연 앞으로도, 중국은 금융 위기에 빠지지 않고, 경제성장을 계속할 수 있을까? 일인당 GDP 가 선진국에 비해서 적은 만큼 성장 여지는 크고, 성장으로 인해 경제 규모가 확대되면 부실 채권과 기업 채무의 과다감은 적다는 기대가 있다. 또한 정치체제의 차이에 의해 신속하게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사태의 악화를 막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금융중개 기능을 국유은행이 주로 맡고 있는 점도 다른 나라에 비해 유리한 점이다.

시진핑 체재에서의 불량채권처리

그러나 하버드 대학의 케네스 로고프 교수들의 연구를 보면 그렇게 낙관적이 되지는 않는다. 교수들의 연구를 정리한 서적 'This Time is Different'에 따르면 1800 년부터 2000 년까지 세계 66 개국에서 268 건의 위기가 발생했지만 금융 위기는 모든 발전 단계의 나라를 구별 없이 덮쳤다. 더불어 중국 상업은행, 우정저축은행, 농촌합작은행, 농촌신용사 등 여러가지 형태의 금융 기관이 있고 이들의 총수는 약 4000 개에 이른다. 정부가 각사의 부실채권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만일의 경우에 충분한 공적자금을 각출할 수 있는지 등의 의문도 남는다.

과잉채무·불량채권을 줄여나가기 위한, 효능이 뛰어나고 손쉬운 처방전은 없다. 중국 정부는 기업이나 지방정부,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에 힘쓰고 있지만, 그것들은 대증요법이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해야 할 일은 기업이나 은행이 누리고 있는 암묵적인 정부 보증 혹은 명시적인 채무 보증을 조금씩 없애 가는 것이다. 그러나 조절을 잘못하면 국유기업이나 지방정부, 금융기관의 연쇄적인 파탄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다지 진전되지 않고 있다.

2013 년에 시진핑 씨가 국가 주석으로 취임하면서 정권 운영의 통제 색채가 더 강해졌다. 국유 부문의 강대화에 의해서, 서로 의지하는 구조를 계속할 방침이다. 과잉채무·부실채권 문제는 장기간에 걸쳐서 중국 경제의 하향 리스크로 계속 유지될 듯.

3.아베외교, 활발하게 외유를 해도 세계에 인정받지 못하고... '보이게 하기'의 처방전 (Newsweek, 2019.12.24)



사진 1) 출처: Newsweek, 역대최장수 아베정권이지만 그 외교는 세계속에서 눈에 띄지 않는다 KIM KYUNG HOON-REUTERS

<세계의 인지도가 낮은 채인 일본은 2020 년의 무질서화하는 세계에서 어떤 외교를 해야 할까. 미국, 중국, 남한, 그리고 북한--. 난제를 극복하고 존재감을 보여주는 분수령이 찾아온다. 본지 연말 합병호 'ISSUES 2020'특집에서>

외교는 국제정세 속에서 나아가는 것. 자신의 의사로 실현할 수 있는 것은 한정된다.

2020 년 국제 정세를 특징 짓는 것은 무엇보다도 11 월 미국 대통령 선거다. 보통이라면, 대통령 선거전의 세계 정세는 수개월 휴식 상태가 된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 세계를 자신의 재선에 사용하려고 중국, 러시아, 북한 등을 상대로 무엇을 할지 모른다. 세계의 틀을 크게 바꿔버릴지도 모른다. 트럼프가 없어도 이제는 전 세계에서 정세가 액상화 되어 외교의 발판이 불안정해지고 있다. 그리고, 미국이 내향 경향을 강화하는 가운데, 일본이 자력으로 대처해야 하는 국면도 증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서 정세에 휩쓸리지 않도록 무엇을 지키고, 분위기를 만들기를 해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필자가 말하자면 그것은, 우선 '국가'보다 인간을 앞세운 민주주의, 그리고 생활수준의 유지와 향상, 그리고 국가로서의 긍지 발휘가 된다.

취임 이후 아베 신조 수상이 활발한 외교를 전개하고 있으면서도 세계 언론에서 일본은 거의 매몰된 채 그대로인데, 그것은 일본이 미국의 하수인으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지 않는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념을 내세워 PKO 참가나 경제원조 등 눈에 보이는 것을 해나간다면, 일본을 '보이게 하기' 할 수도 있을 것이다.

2020 년 대미 관계에서는 미군에 대한 '배려 예산'의 증액(현재의 2000 억엔 미만을 4 배 이상하라고 말하고 있다)협상이 시작된다. 미국이 개발한 중거리 미사일의 일본 배치 여부에 대한 논란도 벌어질 것.

모두 동맹의 틀을 뒤흔드는 큰 문제다. 그리고 트럼프가 대선을 염두에 두고 달러 달러약세·엔고를 물고 올 수도 있다.

‘국민대우’는 대담여하

대미관계가 악화된 중국이 일본에 바짝 다가오고 있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문제로 일본의 입장을 받아들여주는 호기라고 할 수 있다. 홍콩, 대만에 대해 일본의 입장을 더 ‘보이는 화(化)’ 해야 할 것이다. 시진핑 국가주석을 국민 대우할지 여부는 답변 여하에 달렸다.

한국과는 ‘징용공’ 보상 문제가 불을 뿜을 수 있지만, 그보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태도가 쪽이 강도는 크다. 미국이 무력행사를 감행할 경우, 반대로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한 채 평화조약을 맺을 경우 모두 한반도 정세는 격변한다.



사진 2) 출처: Newsweek_JAPAN

올림픽전에는 세계미디어가 일본을 패싱할 것이다

여름에는 도쿄올림픽이 있다. 직전에는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나 대한국 문제로 세계 언론이 일본을 때릴 것이다. 하지만 시작되어 버리면 그것도 수그러들고, 올림픽은 일본 사회의 성숙도를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일본이 자신의 판단으로 외교를 진행하려면 그것을 뒷받침하는 체제의 정비가 필요하다. 전쟁 것처럼 군부와 정부기관이 뿔뿔이 흩어진 채 전쟁으로 치달은 비극은 피해야 한다.

현재 중요한 외교 문제에서는 총리 밑에 주요 성 출신 간부들이 집단회의를 하는 예가 많다. 이는 여러 가지 시각을 종합하면서 매사를 신속히 결정하기에 적합한 방식이다.

그러나 때로는 서로 싸우는 간부들의 시각을 종합해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기량을 갖춘 정치인은 쉽게 나오지 않는다. 포스트 아베를 생각하고 후임자의 기량에 따라 유연하게 재조합할 수 있는 '레고'와 같은 시스템을 생각해 나가야 할 것이다.

4. 일본의 노동생산성을 올리기 위해 필요한 '단 하나의 일' (겐다이비즈니스,

2019.12.26)



사진 1) 출처: 겐다이비즈니스

서비스업의 국제경쟁력

요즘 완전히 TV 드라마를 보는 일이 적어졌다. 하지만 요즘 재미 있는 줄 알고 매주 즐겁게 보고 있는 것이 TBS 계열에서 일요일 오후 9시부터 방영되고 있다. '그랑 메종 도쿄'이다.

'그랑메종 도쿄'는 도쿄의 고급 레스토랑을 무대로 한 드라마이다. 자세한 설명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만 '키무타쿠' 키무라 타쿠야씨가 연기하는 오바나 나츠키라는, 일찍이 프랑스에서 미슐랭 2 개별을 획득하면서 트러블에 휘말려 사라진 천재 요리사가, 스즈키 료카 씨 연기하는 무명의 여자 요리사 하야미 노리코 등과 팀을 짜고 도쿄에서 미슐랭 3 개 별을 획득하려 분투한다는 줄거리이다.

올해 일본에서 개최된 럭비월드컵에서 8 강 진출이라는 쾌거를 이룬 일본대표팀이 'One Team'을 내세워 성공한 것처럼, '그랑메종 도쿄'에서도 팀플레이가 키 컨셉이 되고 있다.

필자는 미슐랭에서 별을 획득한 고급 식당에 자주 다닐 정도의 미식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는 잘 모르지만 국가별로 보면, 일본은 미슐랭의 별점 획득 수가 본고장 프랑스보다 훨씬 웃돌아, 압도적으로 세계 일등인 것 같다.

얼마전에 발표된 '미슐랭 가이드 도쿄 2020'에서는 1 개 별에서 3 개 별까지 별이 붙은 가게 총합계가 226 점포, 최고봉 3 개 별을 획득한 가게가 11 곳으로 알려졌다.

이 것은 일본의 음식점 업계의 국제 경쟁력이 매우 높음을 시사하고 매우 고무적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경제 분야에서는 일본 경제의 생산성이 낮다는 것이 문제이며, 그 으뜸가는 것이 서비스업이라고 알려졌으며 상당한 위화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또, 미슐랭에서 별을 획득한 고급 레스토랑의 대부분이 대형 체인 전개를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근 유행하는, 중소기업이 일본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이야기에다 강한 위화감을 금할 수

없다. 오히려, 고급 음식점 업계에서의 일본의 대활약상을 보면, '뭐야, 일본의 서비스업이라는게 경쟁력 있잖아'라고 생각해 버리는 것이다.

일본기업의 강점은 어디에 있는가

그런데 이 일본의 산업 경쟁력에 대한 연구로서 필자가 매우 흥미롭다고 생각하는 것이 후지모토 다카히로 도쿄대학 대학원 교수들이 오랜 세월 조사·연구되고 있는 '모노즈쿠리(제조) 경영학'의 논의이다. 이 '모노즈쿠리 경영학'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개념으로 '제품·공정의 아키텍처'라는 것이 있다. 이것을 후지모토 교수의 저작을 바탕으로 필자대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제품·공정의 아키텍처'란 제품과 공정에 관한 '기본적인 설계 컨셉'을 말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1)각 부품의 기능을 상호 조정하고 최종 제품 전체의 기능을 최적화하는 제품을 '인테그랄, 통합(조정)형'이라고 부른다.

이 '인테그랄형' 제품은 각 부품간에 특수하고 강한 상호의존관계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자동차를 들 수 있다. 부품간의 상호의존 관계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부품을 시판되고 있는 염가품과 교환하는 것이 곤란하고, 고장 수리 등도 전문 업자에게 맡기지 않으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중국의 자동차 산업은 이 부품간의 특수한 상호의존 관계를 염가품으로 대체하려고 하기 때문에 질 향상이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고, 잘 되지 않고 있다고 여겨지고 있다).

한편 '인테그랄형'와 반대되는 것이 2)'모듈러형'이다.

'모듈러형' 제품은 미리 표준화된 부품을 미리 정해진 룰(설계서 매뉴얼)에 따라 조합함으로써, 전체의 기능이 자연적으로 최적화되는 제품을 가리킨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PC 를 들 수 있다. 컴퓨터는 조금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각 부품에 대해 스스로 마음에 드는 것을 부품점에서 구입해서 스스로 조립하면 수리나 개량을 비교적 쉽게 할 수 있다.

이처럼 제품 종류를 2 가지로 분류하면, 전후부터 일관해서 일본이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온 산업 분야는 '통합형'에 속하는 것이 많았다고 알려졌다.

현재도 일본은 기계나 자동차 등의 산업이 높은 국제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들 업종은 단순한 부품의 조합이라기보다는 고객의 요구를 영업이 이해해 이를 설계나 제조 현장에 피드백하고, 그것을 조제함으로써 다른 나라보다 질 높은 제품을 제공함으로써 높은 이익을 올려왔다.

하지만, 이른바 IT 화 물결 속에서, 제품 자체의 컨셉이 바뀌어, 종래는 일본형의 '인테그랄형'의 경쟁력이 강했던 분야에, '모듈러형'이 침식하고 있는 것이 제조업 실태이다. 이 움직임 때문에 전기산업 등에서는 일본 기업의 경쟁력이 상실되고 있다고 한다.

'전기자동차(EV)'로 대표되듯이, 이 움직임은 일본이 강점을 가지는 업종을 더욱 침식하고 있지만, 그래도 '인테그랄형'의 일본 기업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는 것이 '모노즈쿠리 경영학'에서 본 제조업 실태라는 것이 후지모토 교수들의 진단이다.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상과 같이 지금까지는 이 '제품·공정의 아키텍처'론은 전적으로 제조업에 적용되어 왔다. 하지만, 실은, 이 생각은 서비스업등의 비제조업에도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모노즈쿠리 경영학'의 최근의 흐름인 것 같다.

예를 들면, 호텔에서는 리셉션(접수), 클락, 콘셀주, 레스토랑의 연계가 있으면 있을수록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평가가 높은 호텔일수록 각 담당자는 뿔뿔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연락하고 서비스 요구의 누락이 없도록 하고 있다.

의료도 그렇다. 평가가 높은 의료시설에서는 최적의 치료를 위해 의사, 검사기사, 간호사, 이학치료사(재활치료사)가 컨퍼런스 등의 장소에서 빈번히 의견을 교환하고 연락을 긴밀히 주고받고 있다. 이와 같이, '모노즈꾸리 경영학'의 어프로치를 이용하면, '인테그럴형'이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고, 또 '인테그럴형'에 강점을 발휘해 온 일본은 서비스업의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획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필자 개인의 감상이다.

서두의 '그랑 메종 도쿄'에서도 음식 메뉴 개발에 몇명의 요리사, 파티시에, 소믈리에, 가르송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기탄없이 의견을 모아 1 개의 코스 요리를 완성한다는 장면이 많다. 바로 '인테그럴형'의 제품(코스요리)-공정이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드라마의 세계이지만, 실제로 미술랭에서 별을 획득하는 레스토랑도 같은 프로세스를 거쳐 제품(코스 요리)을 제공하고, 그것이 평가되고 있다고 상상하는 것은 용이하다.

참고로 드라마에서는 '그랑메종 도쿄'의 경쟁점으로서 'Gaku'라는 가게가 등장한다. 개성파 배우라고 해도 좋은 테즈카 토오루 씨 연기하는 'Gaku'의 오너 에토후미오 씨는 미술랭의 3 개 별을 획득하기 위해서 오가미 키쿠노스케 씨 연기하는 탄고학요리사를 갑자기 해고하고 프랑스에서 새로운 요리사를 스카우트하고 교체한다.

또 'Gaku'의 모습을 그린 장면에서는 각 담당자가 부품처럼 묵묵히 일하는 모습이 눈에 띈다. 더 말하자면, 에토 주인은 자주 '최고의 재료와 최고 요리사가 있으면 미술랭 3 개 별은 쉽게 딸 수 있다'라는 말을 한다. 이 'Gaku'의 접근법은 어느쪽이냐고 하면 '모듈러형'의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이 2 개의 레스토랑의 대결은 바로 동일 산업에서의 '통합형 vs. 모듈러형'의 대결 구도로, 증영에 어느쪽에 승리의 여신이 웃을지 궁금하다(드라마적으로는 그랑 메종 도쿄가 이기겠지만).

생산성이 저하하는 원인

지금까지로 눈치가 빠른 독자분은 눈치 채실지 모르지만, 공정에 관련된 관계자의 빈번한 커뮤니케이션이 질 좋은 제품의 제공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인테그럴형'은 매우 손이 많이 간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나지 않으면 당연하듯이 노동생산성은 저하된다.

여기에서 노동 생산성을 '공정 관련 관계자 한명의 1 노동 단위당 부가 가치'라고 정의하면 '인테그럴형'의 산업의 노동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판매 가격을 높게 설정하고, 높은 마진을 따도록 해야 한다.

또, 종업원도,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가지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반대도 당연하다. 몇몇 음식점에서 발각된 '아르바이트 테러'는 그 전형적인 예일 것이다.

즉 디플레이션이 계속되는 환경 하에서는 일본이 전통적으로 강점을 갖는 '인테그럴형'의 산업은 생산성을 현저하게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은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이러한 '인테그럴형'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국내 서비스업의 전형 예가 간병서비스가 아닐까.

일본에서는 오래간 디플레로 개호종사자의 임금이 현저하게 저하되고 있다. 저임금 노동자가 어느정도 납득해서 일하기 위해서는 업무를 엄격하게 한정하여 업무마다 노동단가를 설정하고, '드라이'로 일하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며 인센티브도 나온다. 이것은 바로 '모듈러형'의 공정이다.

또, 저임금 때문에 이직자도 많아 좀처럼 노하우가 정착되지 않는다. 이러한 업계 환경을 감안해도 '모듈러형'은 합리적이다. 하지만, '모듈러형'에서는 업무가 미리 엄밀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눈치껏 그 이외의 업무를 한다고 하는 기회가 압도적으로 적어지고, 그 인센티브도 상실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한 개호시설에서는 방의 청소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 시간이 되면 청소하는 담당자가 청소를 실시한다. 그 동안은 그 다른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그 시간대에 예를 들어, 목이 말랐기 때문에 음료수를 마시게 한다, 예를 들어 화장실에 가고 싶어졌기 때문에 데려다 달라고 하는 서비스를 청소하는 담당은 기본적으로 해주지 않는다.

또 이 청소시간대가 다른 개호 서비스 종사자의 휴식시간이 되어 있는 케이스도 많고 그 사이에 그 사람들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듣는다. 예를 들면, 그 자리에서 팁을 듬뿍 주면 이 정도 해주지 않을까 싶은데, 사전에 여러 서비스에 세세하게 가격이 설정되어 있어, 그러한 서비스를 미리 조합해서 매월 서비스 요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스템으로서는 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그런 행위를 하면 퇴거처분이 된다).

하기야, 좀 더 세심한 서비스의 제공을 원한다면, 나름대로 돈을 내고 더 고가의 시설에 들어가면 되지만, 디플레 아래에서는 그러한 여유를 가진 사람은 적을 것이다.

디플레 마인드가 부활하고 있다

같은 이야기는 요식업에도 해당된다. 미리 공장에서 대량 생산된 구재를 그 자리에서 데우거나 간단한 조리를 해줄 뿐인데, 그 대신 싼값에 제공하는 듯한 업태가 디플레하에서 대두된 것은 기억에 새롭다. 거기에서 10 월 소비세율 인상의 영향이다. 10 월 소비 종합 지수는 전월 대비 ▲ 2.6% 떨어졌다(갑작스런 수요 증가가 예상됐던 9 월은 이+2.3%). 이는 전회(2014 년 4 월)소비율 인상 시 동 ▲ 7.8%의 저하보다 감소 폭은 압도적으로 작다(같은 증세 전의 그 해 3 월은 이+4.1%).

전회는 증세에 의해서 소비 종합 지수 수준 자체가 크게 떨어지고 2011 년 수준까지 푹 떨어졌지만 이번에는 저번의 소비 증세 후의 트렌드에서 크게 이탈하는 수준의 위축은 아니었다.

그러나 제삼차 산업 활동 지수의 '기호형 개인 서비스'의 지수는 지난 소비 증세 때보다 폭이 크고 그 수준은 동 일본 대지진 이후의 수준까지 한꺼번에 떨어졌다. 한편 '비 선택형 소비 서비스(의료 등 의무적 지출이 많다)' 침체는 경미했다.

또,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번 화제에 올린 음식업계의 동향이다.

고급 레스토랑이 포함된다 '전문점 식당'의 활동 지수가 소비 증세 실시 후의 10 월에 크게 떨어졌다. 사실, 이 '전문점·레스토랑'은 전회의 소비 증세시에는 활동지수가 거의 떨어지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상당히 큰 침체를 기록했다.

이 '전문점 식당'의 활동 지수는 2011 년 동 일본 대지진으로 크게 추락한 뒤 일단 전 수준에 캐치업하고 2012 년 후반의 정권 교체가 다가온 시점에서 트렌드로도 상승세로 돌아섰다. 그 뒤 2015 년 피크아웃하고 2017 년까지는 완만하게 저하된 뒤 2017 년부터 다시 완만한 상승세로 돌아섰다.

즉, 이 '전문점·레스토랑'의 활동지수는 소비자의 인플레이션·디플레이션을 바로바로 나타내는 움직임을 해왔다고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지수가 이번 소비 증세를 계기로 급저하한 것은 마음에 걸린다.

그리고 이것은, 이번 소비 증세는 전회 이상으로 소비자 사이에 디플레이션 마인드를 부활시키고 있는 염려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다.

특히, 소비 증세의 영향이 경미하다고 생각되어 온 고급 음식점의 업황을 급격히 악화시켰다는 것은 소비 증세 자체가 물가 상승을 통한 실질 가처분소득의 침체를 통한 실질 소비수준의 상승이라기보다는 본격적인 증세 시대의 도래를 예감하게 하는 정책 스탠스이기 때문에 부유층에게도 예외 없이 절약지향을 높이게 하는 효과를 가져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대로 디플레이션 마인드가 다시 정착해 버리면, 임금에 하락 압력이 가해져, 국내 서비스업은 충분한 마진을 취하지 못하고 생산성을 현저하게 악화시킬 염려가 있다.

필자는 일본 서비스업의 생산성 악화가 장기 정체·장기 디플레이션을 초래하고 있다기보다는 장기 디플레이션의 결과, 마진이 저하되고 이것이 저임금화를 경유해 생산성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소비 증세가 다시 디플레이션 마인드를 강화하는 것은 절대로 막아야 할 것이다.

KIC 중국 NEWS

1. 중국기업연합회 및 중국기업가협회, KIC 중국 방문 (2019.12.23)



사진 1) 출처: KIC. (왼쪽부터)중국기업연합회, 중국기업가협회 상무 이사 송리썬(宋立新), KIC 중국 센터장 이상운

12 월 23 일, 중국기업연합회 및 중국기업가협회측에서 KIC 중국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 업무 협의에는 KIC 중국 센터장 이상운, 중국기업연합회, 중국기업가협회 상무 이사 송리썬(宋立新)으로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중국기업연합회(옛 중국기업관리협회), 중국기업가협회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정부의 승인을 거쳐 등록된 전국적인 사단법인 조직(중문약칭 중국기련)이다. 중국기업관리협회는 1979 년 3 월 설립되었으며, 중국기업가협회는 1984 년 3 월에 설립되었으며, 1999 년 4 월 24 일 중국기업관리협회가 중국기업연합회로 개칭되었다.

중국기업연합회는 이미 기계·경공·방직·상업·전자·철도·교통·석탄·대외 경제무역 협력·석유·석화· 등 36 개 전국 단위 기업이 있다. 중국기업연합회 직속기업 회원이 3000 개에 육박하고 회원기업 43 만 6000 개를 연결해 전국을 아우르는 조직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기업가(기업경영관리자)를 주체로 전문가 학자 언론인이 참여해 기업 개혁과 발전을 추진하고 기업 경영 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기업과 정부의 연계, 기업과 기업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중국 기업가 협회는 기업과 기업가를 위한 업무의 취지를 고수하고 있으며, 기업과 경제 관리 부서에 교육, 자문, 정보, 연구 성과 등의 지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적, 신문을 출판 관리하며, 기업 관리 현대화와 생산 기술 현대화를 위한 국제 교류를 추진한다.



사진 2) 출처: KIC. KIC 중국 내부 참관 모습

금번 주요 행사 일정은 KIC 중국 이상운 센터장의 설명과 함께 KIC 중국 내부를 참관했다. 또한, KIC 중국 대회의실에서 중국기업연합회와 KIC 중국 양측 기관의 향후 협력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본 중국기업연합회 방문단은 중국 진출에 힘쓰는 KIC 중국의 발전을 기원하고,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 및 창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며 이번 일정을 마무리 지었다.

KIC 중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으로서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의 스타트업 및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6 년 설립되었다.

또한 KIC 중국은 우수한 한국의 인재들이 중국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으로서 정체성을 다지는 디딤돌이 되어주며, 향후 상호 협력을 통해 더 넓은 범위에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

[KIC 연구원 황소정]

2. KIC 중국, ETRI 와 한국기업 중국 진출 지원을 위한 협력 체결 (2019.12.24)

KIC 중국(한국혁신센터)은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 와 한국기업의 중국 진출 지원을 위한 MOU 를 금일(24 일) KIC 센터에서 체결하였다.



사진 1) 출처: KIC. (왼쪽부터) 손익수센터장 (북경연구센터), 김용채실장 (기술창업실), 박종흥본부장 (중소기업사업화본부), 이상운센터장 (KIC 중국), 박호영부장 (중소기업사업화본부 R&D 사업화부), 오경석책임연구원 (기술창업실), 조강군부장 (KIC 중국)

협력의 주요내용으로는 ETRI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의 KIC 중국 창업교육 및 엑셀러레이션 프로그램 참가, KIC 중국 플랫폼을 통한 ETRI 기술 소개 및 홍보, ETRI 창업기업 등의 중국 시장진출 및 투자유치 지원 등이 있다.

이번 협력을 계기로 ETRI 는 KIC 중국을 통하여 자사의 기술을 국내뿐 아니라 중국에 알리며, 한국의 기술을 전파하는데 더욱 힘을 예정이다.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는 정보·통신·전자 분야의 연구개발을 하는 국내 최대의 정부 출연연구기관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이다. ETRI 주요 임무는 반도체, 통신, 컴퓨터 분야의 핵심기술 연구개발, 통신기술 정책수립 지원 및 기술정보 수집·제공, 통신방식에 대한 표준화 연구, 그리고 산업체에 대한 기술 전수 및 지원과 산업체와의 공동 개발 등을 들 수 있다.

KIC 중국의 이상운 센터장은 본 협력에 대해 '과기부 산하의 기관, 더 나아가 한국의 모든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하는데 KIC 중국이 교두보가 되었으면 한다. 오늘 ETRI 와의 MOU 가 우리의 목표를 실현시키는데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입장을 밝혔다.

[KIC 중국. 황대연 연구원]